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1 4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61 1981년7월9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July 9. 1981

회장단 사의 철회! 한인회 분규 재연

회장단 사표로 일단 수습 기미를 보이던 토론토 한인회 분규는 7일밤 열린 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언성이 높아지자, 다시 한인회정상화대책위원회가 수습키로 결의됐다.

이날 한인회관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에는 지난달 26일 사표를 낸 강우석 회장, 지난 4일 사임한 박태식 부회장이 참석, 사표를 쓰게 된 연유를 설명하고, "최양옥 이사장은 사회를 맡을 수 없다"고주장했다.

이들은 "우리가 사표를 낸 것은 최이사장도 분규에 대한 일단의 책임을 지고 같이 물러간다는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이사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한 우리 사표는 철회한다"고 말했다.

최이사장은 강회장단이 발언권도 얻지않고 마구 발언한다고 주의를 준 후 퇴장을 명령, 이들은 회의장소에서 떠났다.

김문량 이사는 앞서 강회장을 찾아가 사표를 받아냈다. 강회장은 이때 최이사장도 사임한다는 것을 전제, 자기 사표를 썼다고 말했다.

회장단이 퇴장하고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15분간 정회후 다시 모인 이사회에서 최이사장은"나는 이사장 자리가 탐이 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회장단 사임에 이어 이사장까지 물러나면 누가 혼란을 수습할 것이냐?"고 신상발언을 했다.

윤덕조 이사가 "회장단 사표문제부터 토의하자"고 재의하자, 김문량 이사는 "우리 힘으로 안되니 이 문제를 대책위원회에 넘기자"고 동의, 이 안이 통과됐다.

회장단은 하오8시35분다시 들어와 회의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이사회는 이날 회장단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 회장단 선출때까지의 과도 운영위원을 편성하는등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소집됐으나 분규해결을 대책위원회에 넘기고 밤 9시40분 폐회했다.

한인회정상화대책위원회는 회장단과 이사회간의분규, 사태수습등을 위해 이사회가 구성한 단체이다.

이사회는 간사 조신자씨 해임문제, 캐라반 불참, 장한 어머니선정등에 관련, 지난5월5일 회장단을 불신임하자 회장단은 이 사회를 해체한다고 강경하게 맞서 소동이 계속되어 왔다.

"회장단 사임은 기정사실 번의하면 신뢰 잃을터"

최양옥 한인회 이사장은 8일"강우석 회장단의 사임은 7일 이사회에서 보고됨으로써 기정사실화 했기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상이 문제에대한 논란은 더있을수 없다"고 말하고「회장단 사표는 이사장단 동시사임 조건으로 제출됐다」는 회장단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최이사장은"회장단이 이제와서 사의를 번의하면더욱 교민들의 신뢰를 잃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사장은 이들의 사표가 이사회에 보고됨으로써 처리됐고, 따라서 이들은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이사장은 회장단등 사임은 이사회 보고로 수락되는 것이 전례였다 고 밝혔다.

최이사장은 일단 사임하기로 마음먹고 사표를 쓴 사람들이 이를 곧 철회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며 "그들이 주장하는「이사장단 동시퇴진 조건」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강회장의 사임이 이사장단 퇴진을 전제로 했다면 왜 우리는 이제까지 이 사실을 몰랐으며, 왜 그들이 쓴 사표에는 일언반구가 없었느냐?"고 최이사장은 의문을 표시했다.

대책위원들은 오는 17일 한인회관에서 회의를 갖는다.

「남침」은 분명

주일 미사령관 단언

(서울) 일본지역 주둔 미군사령관 월렴·진 중장은 "북한은 어느날 갑자기 남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업수당규정 강화

고용성서 법개정 추진

(오타와)로이드·액스워디 고용이만성 장관은 실업수당금(UI)지불규정을강화, 악용 풍조를 줄이고 여성, 청년층, 원주민의 직업훈련을 촉진하는 건의안을 작성했다.

올가을 입법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토론토같이 고용 상태가 좋은지역의 주민이 실업수당금을 타려면 최소 20주간을 일해야 한다. 현재 최소 취업일수는 14주간이다. 이와같이 실업수당을받을수 있는 최소 취업일수는 지역에따라 다르게 정한다.

■임산부의 출산혜택에 대한 여러제한을 철폐하고, 양자를 입양하는 부모에게도 출산부에 준하는 혜택을 준다.

■현 최장 24주의 실업수당 수해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공학, 과학, 기술분야 확장및 산업체 의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한다.

■섬유및 자동차업 등경영이 어려운 사업체를 돕기위해 세금감면, 융자금지불보증등의 혜택을 준다.

최이사장을 비난

강우석회장단 인터뷰

본지는 7일밤 한인회 이사회가 끝난후 강우석·박태식 회장단과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가졌다.

— 어떻게 사표를 철회하게 되었는가?

답 : 정상화대책위원회가회장단의 사표만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우리가 사표를 낸것은 이사장도 사퇴한다는 전제 서였다. 한인회 경험 없이 출발한 우리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이사장에 대해 기대도 컸다. 그러나 최이사장은 신문사설사본(회장단 퇴장 주장 내용)을돌리는등 회장단과의 반목만 일삼았으니 곤란하다.

— 앞으로 어떻게 한인회를 운영해 가려는가?

답 : 다시 일하고 물러가겠다. 그리고 한인회칙을 개정, 회장단이 이사장보다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해놓아야한다.

— 강회장은 현재 사업체를 두개나 가져 한인회 일을 보기 힘들다고 보는데?

답 : 업체 1개(세탁소)를팔려고 내놓았다. 시간이 나는대로 열심히 일할 것이다.

— 교민들은 이번 분규를 의아히 여기고 있다. 교민들은 개인감정 외에 이렇게 소란스러워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납득을 못하고 있다.

답 : 이사장단에도 분규는 있다. 그들은 스스로 파워를 만들고 있다.

주물 사절단 몬트리얼 방문

한국주단조공업 협동조합이 파견한 주물사절단(단장 안태청, 신일 캐스팅사장) 13명은 지난 19일 정명규 몬트리얼 무역관장의 안내로「그래비 |소재 비란·엔지니어 주물회사를방문, 약 2백만 달러어치의 수출계약서에 서명했다.

선진국 에서는 공해때문에 주물산업이 위축, 한국서의 수출이 유망하다.

이들이 주로 취급하는품목은 캐스트, 스틸, 밸브, 바디, 본넷등이다.

사절단에는 상공부 사무관 이화식씨가 동행했다.

난관 많으나 크게 도약할듯

경제지, 금년도 한국경제 분석

세계적 권위경제지인 런던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한국경제를 분석,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에는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빈·라퍼티 기자가 쓴 기사는 6일자 〈그로브·앤드 매일〉지 경제란에 다시 게재됐다.

한국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결실을 맺을 해를 맞았다. 한국정부는 작년도에 뒷걸음친경제성장률을 금년에 만회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 가들은 한국이 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그러나 성장추세가 얼마나 지속할지가 관건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60년이후 계속 연평균 9% 씩 성장했으나 작년에는 하이너스 성장했다.

작년도에 새 오일쇼크나 계속된 세계경제침체는 한국수출산업을 마비시켰고 국내 인프레이션을 가열화시켜 도매물가 상승율은 44%, 소비자물가는 35% 나 올랐다.

"원"의 가치는 미국달러당 36% 나 떨어져 수출은 도왔지만 원유도입등 수입업자에게는 큰 부담을 주었다. 실업율은 3.5% 에서 5% 이상으로 뛰었다.

이상기후는 30% 의 곡물생산감퇴를 초래, 수입대전을 늘게했다. 콜레라발생은 관광객을 쫓아버렸다. 그중에서도 가장중요한 원인은 박대통령 저격사건후 일어난 정치불안이었다.

금년 성장목표 5~6%는 마지막 성장을 기록했던 79년 말과 같다.

1.4분기의 수출은 목표액을 약간 초과 달성했다. 특히 4월에는 전년도보다 33% 증가를 보였다. 금년도 수출 목표액은 미화211억달러이다.

물가상승도 안정세를 보였다. 1.4분기 물가상승률은 5.5%였다. 비록 지난 4월들어 석유, 석탄등 에너지가격을 올렸지만 금년도의 인프레이션은 20~25%선에서 잡힐것같다.

3월의 산업생산은 2월에 비해 20% 증가, 최근들어 가장좋은기록을 보였다.

한국 주종산업인 섬유·전자제품·철강산업등이경제에 기여했다. 작년도에 창고에 가득 쌓였던 재고량도 많이 정리됐다.

한국증권시장도 성장추세이다. 지난 4월에는 하루 3천8백만주나 거래된 적도 있었다.

경제기획원의 모든 경제지표들은 작년후반기 부터 경제회복을 암시하는 증가를 기록했다. 정치도 안정됐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몇몇 산업들은 신용도를 잃게되면 급속히 무너져 버릴 단계이다.

성장률 목표달성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 요소는 국민총생산의 2~3% 에 달하는 곡물재배가 평년작을 이룰수 있느냐이다.

금년도 원유및 곡물수입대전은 86억달러에 이른다. 금년도「원」은 달러당 5%를 평가절하 할 것같다.

한국은 금년에 다시 외환부족을 겪게될 것이다. 한국은행자료에 따르면 무역적자는 42억달러, 현금부족이 53억달러에 이를것이다.

한국은 금년도 80억달러의 외자를 필요로한다. 외자도입전망은 밝다. 약 6억달러 특별차관이 IMF(국제통화기금)와 협상중이다. 상업차관의 경우에도 이자율·차관조건이매우 좋아졌다.

한국은행 부총재 김건씨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부채상환율은 13%로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고 낙관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전통적 자본 빈약국으로 경제성장과 수출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차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잘 조직돼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정책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다. 한 경제학자는 "경제전문가들을 자유경제체제의 개방주의를 주창하지만 많은 법률가들로 구성된 재무부의 관료주의는 제한경제체제에 역점을둔다"고 말했다. 외국 투자가들은 이 관료주의 때문에 정책·투자결정에 박 대통령 시대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두덜됐다. (계속)

◇경재발전이 기대되는 남한

— 사 고 —

우편파업중에는 이틀치 신문을 합쳐서 발행하는일이 가끔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사 드림 —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곤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9184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를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서울행단체 매주출발
IATA 저렴한 요금의
●국내항공표일체 ●각종관광여행
●국제항공표 일체 ●각종 CREDIT카드 환영
컴퓨터 시스템으로 신속처리
신용과 경험과 책임성있는
여러분의 여행사!!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ONTO
(B)531-4607 (R)487-8088
성낙윤

아 세 아
건 재 약 방
선 물 센 타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청심환을
대량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저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北京同仁堂
牛黃清心丸
大量入荷
BIG SEVEN TRADING CO.
6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옆)
☎: 530-0522. 3
조지섭·김영철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퀘벡주가 전망밝아

온타리오주보다 경제 유리

◇강사 정희수 박사.

(몬트리얼정관성지국장) 몬트리얼 실업인협회(회장 조병철)는 지난 27일 몬트리얼 시편에 있는 공군예비역 장교클럽에서 실업인협회 고문으로 있는 정희수 박사(퀘벡대학 경제 과교수)를 초청, 50여명의회원이 모인가운데"앞으로의 경제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 정박사는 "장기적으로보면 퀘벡주가 온타리오주보다 경제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정박사는 퀘벡주가 정치적인 안정성이 없지만 철강, 석면따위의 지하자원과 돼지고기, 밀크등은 곧 온타리오주로 팔수 있는점을 지적했다.

"온타리오는 인구가 많지만 자동차공업등이 활발치못해 앞으로는 퀘벡의경제여건이 다시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정박사는 말했다.

세미나에이어 국영화"달려라 풍선"이 상연됐다.

은행협회서"봐주는 방향" 모기지 부담자에 융통성

캐나다 은행들을 높은 이자율에 고통받는 주택소유자, 농부, 소규모사업가들을 위해 보호책을 강구중이라고 연방정부 재무성이 6일 발표했다.

알랜·매케켄 재무장관은 이날 150여명 뱅쿠버 무역업자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정부는 전국 은행협회에 높은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보호책 강구를 희망했다"고 밝혔으나 캐나다은행협회의 로버트 매킨토쉬 회장은 "은행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법적 조처를 취할 생각은 없다"면서 특별보호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소유 자들이 특별모기지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은행들은 현모기지율 19%는 고수하고, 계약연장등 다른 보호책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들은 소규모 사업가들을 위한 개발기금을 2배로 증가, 16억달러로 늘이기로 했다. 소기업 경영자들은 담보가 있을 때 이 기금에서 19.8%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학생회 영화상영 5백여달러 수익

몬트리얼 한인 학생회(회장 박수홍)는 학생회기금 모금"영화의 밤"을 지난21일 한인연합교회에서 가졌다. 약 130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문화영화「한국」과 국영화 「마지막겨울」이 상연됐다.

이날 입장료는 2달러 였으며, 학생회는 음료수를 팔아 기금을 보탰다. 많은 사람들이 입장권만 사주고 참석하지 않아 학생회는약 500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돈은 이번 3 일에있은학생들의 하기캠프에 쓰여졌다.

移民과여행자를위한 生活英語

담당 민병철

【美 ―루먼大 영어연구원장】

FIRST COME FIRST SERVED.

역시 교황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Pope(교황)가 시카고를 다녀간 다음날 한TV방송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색적인 안내 방송을 하였다。

16,000 yellow and white mums used to decorate the Papal altar were taken down and given away to people ;first come, first served. (교황의 제단을 장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16,000개의 노랗고 흰 국화들이 내려져서 사람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뉘어졌다)。150만여명이 참석한 mass가 끝난 다음날 치장되었던 국화꽃들을 먼저 오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말인 것이다。

First come first served. 란, 먼저 오는 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말로, 「선착순」의 뜻이다。특히, grocery store (식품점)나 department store(백화점 ;department라고 하지 말것) 같은 곳에서 sale (염가매출)을 할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백화점에서 Half price for one day only. First come first served. 이같은 문귀를 볼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룻동안만 절반가격, 선착순」이라는 뜻이다。

또한 typing class (타자반)에 연습용 typewriter는 20대뿐인데 수강생은 30명이 있다면 「먼저가서 치는 사람이 임자」라고 표현할 때도 First come first served. 의 표현을 사용할수 있다。

A : They're having a furniture sale at Sears.
B : Maybe I should go there next week.
A : No, you have to hurry. It's for one day only.
B : Should we go there tonight, then?
A : Yes, I think so, because it's first come, first served.
B : O.K. I'll pick you up after work.
A : 시어스에서 가구 염가 판매를 하고있죠。
B : 다음 주에 가봐야 되겠군요。
A : 아니 서두르셔야 해요。하룻동안만 세일이거든요。
B : 그러면, 오늘밤에 가실까요?
A :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선착순 세일이니까요。
B : 좋아요。퇴근 후에 차로 모시러 가지요。

*mum : chrysanthemum(국화)의 약형으로 구어체。
altar:제단。

<한국일보 시카고支社제공>

직업훈련 시켜달라 필리핀장관이 요청

(마닐라7일=연합) 주영복 국방장관은 쥬안·폰세·엔릴 필리핀국방장관 으로부터 한국이 한국참전 필리핀용사들의 자녀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받았다.

주장관은 즉각적인 답변은 회피하고, 다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장관은 전대통령을 수행, 필리핀을방문중이었다.

서울 외환시세

(은행의 구입/판매)

캐나다달러 567.63/571.63원
미국달러 684.10/689.10원
일본 100엔 298.32/300.42원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매매는 한산하나 가격은 $7천 올라 —토론토부동산 시장—

지난달 토론토지역의 부동산 매매수는 금년들어최하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주택의 평균가격은 5월보다 7천달러 가량뛰어 10만달러를 상회한다고 토론토부동산협회가 밝혔다.

협회통계에 의하면 6월의 매매건수는 1,621건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3월 5,040건의 ⅓이었다.

부동산 경기는 침체했지만 20만달러 이상의 고급주택은 74채가 팔려 호조를 보였다.

협회장 모라니스 여사는 "고급주택의 매매가 주택평균가격을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 이상을 기록케 했다"고 밝혔다.

모라니스 여사는 부동산시장에 나온 주택수의 증가에 따라 시장상태는 「파는 측 시장」에서 「사는 측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시장 리스트에 올라있는 주택수는 18,100채로 지난 4월의 2배 에 이른다.

"여름철에는 시장에 나오는 주택이 적으므로 계속적 가격인상이 정당된다"고 모라니스 여사는 말했다.

부동산 중개가 본업인 부동산협회측 주장과 통계는 가끔 부정확하고 부동산투자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평화통일 정책 자문회의에 다녀와서

정 일 송

■정일송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은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평화통일자문회의에 캐나다대표로 참석했다가 최근 돌아왔다. 정씨는 80년도 런던한인회장이었고 작년말 본국 외무부장관이 주는 유공교포표창을 받았다. 온타리오지역에서는 지난 5월 4명이 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선정됐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자문위원이란 길다란 명칭의 직을 위임받고 서둘러 준비하여 참석한 서울에서의 제1차 총회는 여러가지로 감회가 깊었다.

첫째,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관한 정책을 논의한다는것 자체가 흥미를 끈다기보다 엄숙한 기분과 '강한 참여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국민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9,000명에 가까운 대표자가 한자리에모여 민족의 통일에관한 결의를 다진다니 나로서는 이 역사적 순간에 긴장하지 않을수 없었다.

셋째, 개인적으로는 5년만에 다시밟는 조국이요그리운 얼굴들을 대면할수있다는 기대로 시종 흥분된 마음을 가눌길이 없었다.

본 회의가 시작되기전 개회식에서 전대통령은 개회사를통해 통일에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미 발표한 1·12 남북 수뇌회담제의실현을위한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북한당국이 대화의 광장에 나오도록 요구 하였다.

과거에 대화의 상대자나 의제, 또는 회의장소등이 문제가 된적도 있었는데대통령은 이 모든것을 북한당국의 선택에 일임하고아무 조건없이 만나서 민족통일을 논의하자고 제의, 큰 환영을 받았다.

이 순간 나는 통일의 실마리가 이로부터 풀려 나가기를 바라는마음 간절했다.

이어서 열린 총회에서는 경과보고, 위원발언, 결의문채택, 앞으로의 활동방향제시등이 있었다.

저녁에 대통령 주최로해외자문위원을 위한 파티가 경회루에서 있었다. 정부, 국회, 법원, 정당의 대표자 및 지도급 인사와 외교사절들도 함께 초대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대통령은 위원들의 질문이나 해외소식을 들으며 대화형식으로 약 30분간 통일에관한 의견을 말했다. 그 요지는 대충 두가지로 집약할수있었다.

하나는 민족의 통일을위해서는 서로 이해 해야 한다. 서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하고 대화를 위해서는 만나야한다. 만나면 실태를 알게된다. 이것은 오해를 제거하고 오판을 막는다. 북한의 지도자도 다같은 한민족의 일원이다. 그들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보면 그들의밑바탕에 숨겨진 민족의감정을 이끌어낼수 있을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북한의대표자에게 대한민국을 직접보이고 싶다.

또하나는 민족통일을위한 세대문제이다. 분단의 비극을 맛보지않은 세대는 통일의 의지도 그만큼 약할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하나가 아니면 적어도 터전을닦는일만은 우리세대에서 하지않으면 안된다.

대담이 끝난후 해외자문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나누었고 이어서 국악원생들의 연주가 있었다.

나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캐나다를 출발하기전에 한명의 교포유학생과 직장의 상사로부터 다음과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캐나다에 살고있다 그런데 왜 꼭 그회의에 참석을 해야하는가?"나의 대답은 이랬다. "조국이통일되는것은 한국인이 어디에 살거나 공통된 염원이요 관심사다."아직 시민권이없고 영주권만 가진관계로 나같은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법률상의 권리변동이 민족을 바꾸지 못한다. 통일은 민족의 문제다. 차기에 시민권자이건 영주권자이건 한국인이면 누구나 조국의 통일을위한 모임에 다같이 참여할수있게 되기를 바란다.

무더위 계속…33도 주말부터 내릴 듯

연3일째 온타리오 남단과 퀘벡주를 엄습한 더위는 7일낮12시 토론토의 수은주를 33도로 올려 시민들은 호숫가, 수영장, 아이스크림가게로 몰려들었다. 에어콘등의 전기소모량이 커지자 5만세대의 가정에게 전기마저 끊겼다.

7일하오 하이웨이7 북쪽 돈밀가에 있는 2만3천볼트의 고압선이 늘어져, 정전소동이 있었다. 또 버몬지 변전소의 고압선이 과잉출력으로 송전중단, 스카브로와 노스욕 일부지역이 2시간동안 정전됐다.

"마침 보조송전선도 수리중이었으므로 단전됐다"고 온타리오·하이드로 는 밝혔다.

한땐 미국에서는 38도의 무더위가 북서지방을 덮고 있는 동안 몬타나의 국립공원에는 8인치의 눈이 쌓여 이변을 보였다. 이 공원에는 8일에도 이틀째 계속 1피트의 폭설이 내렸다.

환경청은 8일 공항 부근의 휴미디티(습도)가 39였다고 발표했다. 기록에 의하면 1921년 이날에는 36도를 기록했다.

이번 주말에는 온도가 약간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습도는 계속 높아 불쾌지수가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

미국에 농장 마련 한국, 사료확보 위해

(서울8일=연합) 한국정부는 미국과 합작으로 미국에 9만8천에이커 넓이의 농장을 확보, 여기서 재배되는 연간 50만톤의 사료용 인디안 [illegible]을 수입할 예정이다.

패션모델 피살 강간당한 흔적

지난 2일 토론토 다운타운 아파트에서 패션 모델 세릴·가드너(20)양이 반나체의 시체로 발견됐다고 메트로경찰은 3일 발표했다.

메트로경찰 살인사건전담반은 가드너양이 살해된 2일 저녁 9시30분 가드너양 아파트 수퍼인텐던트 라고 밝힌 남자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화를 건 남자를 살인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가드너양의 시체에는 강간흔적이 있었다.

늘씬한 금발의 미녀 가드너양은 두부타박상을 입었다. 담당형사는 "이사건은 성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드너양은 79년에 쉐리단·칼레지 모델학과를 졸업, 패션계의 톱모델 이었다.

가드너양 피살후 경찰에는 그녀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일러주는 전화가 수없이 걸려왔다.

◇강간·피살된 가드너양.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㉗

팔리·모왓 원작, 현재훈 옮김

센 물길을 헤치고 가 는것은 쉽지않은 일 이었으며, 강물은 온통 다갈색인데 강 밑쪽으로 흘러 갈때는 갈색이 엷어지기도하고 진홍색으로 변하며, 빠른물결에 휩쓸릴때는 전혀 갈색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우리는 반대편 언덕에닿자 카누를 강물에서 건져올리기 위하여 얕은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총소리와 강을건너던 흥분이 끝가라앉고 가파른 바위위에 올라서 보니 이미 죽었거나 아직도 죽어가고있는사슴들이 보였다.

뚝 밑으로 열두어마리의 사슴이 누워 있었다. 이미 죽어있는 놈은 두마리이고 나머지는 아직 살아있어계속 품어나오는 짙은피가강가장자리의 파도속에 군데군데 엉키어 있었다. 나머지 놈들은 바위위에 부들부들 떨고 앉아서 무거운 머리를들어 힘없이 우리를 쳐다보거나 일어서서 도망가려고 버둥대다가는 다시 앞으로 꼬구라졌다. 이것은 공포와 살육의 광경이었고 새끼를 배서 배가 잔뜩 불러있는 이 암사슴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차마 바라볼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 땅의 활력소인 사슴의 피가 흐르는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광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이방인의 낯선 눈길이었고 나는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프란쯔는 전혀그런것같지 않았다. 사슴처럼 재빠른 동작으로 프란쯔는 바위사이에 누워있는 사슴에게 다아갔다. 그는 단검으로 능란하게 사슴의 뒷덜미를 찔러 척추를따라 갈라내려갔다. 그의 솜씨는 노련하고 잔인할 정도로 재빨랐다. 약 10여분안에 사슴들이 모두 조용해지자 프란쯔는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다. 한번의칼질로 배가 완전히 갈라졌다. 어쩌나 칼을잘 다루는지 가죽을 벗길때 나뭇잎과 이끼를 먹어 잔뜩 부풀어있는 배의 부드러운 조직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다음 맨손을뜨끈한 배속으로 집어넣어힘껏 잡아당겨 내장을 뽑아냈다. 간과 콩팥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고나서 칼을 도끼처럼 다루어 허리에서 양쪽다리를 떼어냈다. 앞다리는 건드리지않고 턱밑을 갈라 묵직한 혓바닥을 잘라냈다.

나는 처음엔 혐오와 황홀경으로 바라 보았으나프란쯔의 칼놀림이 너무나재치있고 능란했기 때문에그 무서운 광경이 점점흐려져갔다. 나중에는 그의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당시에는 알지못한일이었지만 타이렐찌가 보았던 사슴을먹고사는 사람들이 사슴을 잡을때처럼프란쯔도 이할미우트 사람들에게서 이 놀라운 기술을 배웠던 것이다.

20분도 채 못되어 모든 사슴을 해치우고나자 우리는 뒷다리를 강변으로 옮겼다. 약 반시간 전에만해도 살아있던 사슴 들이 거기에 서 있었으나 지금은 모양없이 피가 뚝뚝 흐르는 고기덩이로 변하여녹기시작한 눈 위에서 김이 나고 있었다.

변화가 너무 빨라서 그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땅에서 오래살게되어 이런 짐승죽이는 일들의 뒷면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을때 나는 북쪽에사는 사람들의 눈을갖고 죽음의 순수한효용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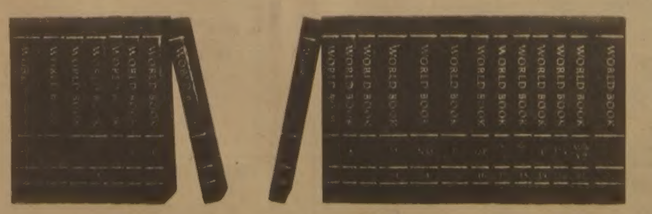
이 봄은 바렌에서의 나의 첫 봄이었고 사슴이 거기에 돌아왔던 것이다.

봄이 돌아오면서 지루하고 고생스러웠던 겨울은끝이났다. 집밖에 매어논굶주린 개들이 비쩍마른 머리를 쳐들고 강한 사슴고기냄새가 바람에 실려오자 기운차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계속)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533－2363 (9시～4시) 769－4366(저녁7시이후)

사진의 전당

TECH PHOTO LAB
INDUK RHEE
PRESIDENT
630 BLOOR ST W.
TOR. ONT.

■ 각종증명사진 ■ 결혼사진
■ 현상, 인화, 확대 ■ 회갑사진
■ 출장환영 ■ 돌 사 진

☎535-7772 새한칼라현상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全대통령 着比 마르코스와 要談

最終巡訪地 내일上午 1차頂上회담

【마닐라6日=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은 泰國방문을 마치고 6일하오 아세안巡訪의 마지막이자 5번째 방문국인 필리핀에 도착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3시50분(한국시간·이하 같음) 마닐라공항에 도착, 마르코스 대통령과 영부인 이멜다여사를 비롯한 3府요인및 한국僑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어 하오4시25분 루네타공원의 리잘記念碑에 헌화하고 숙소인 영빈관에 여장을 푼뒤 하오 8시30분 말라카냥宮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을 예방했다.

全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여사는 대통령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부처와 선물을 교환하고 서로 훈장을 수여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저녁9시 말라카냥宮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全대통령은 7일 상오 마르코스 대통령과 1차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문제를 포함, 韓·比양국의 다각적인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8일 하오 제2차頂上會談을 끝낸뒤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마닐라에 도착 성명을통해 『한국정부와 국민은 50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을때 필리핀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와서 함께 싸워준데대한 고마움을 아직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오늘날 모든 국제문제는 어느 한나라만의 노력으로써 해결할수 없으며 반드시 서로 뜻을 같이하는 우방들끼리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通商·經協 확대 多邊化

韓·泰공동성명 民間협력委통해 合作촉진도

◇마르코스 直接영접 全斗煥 대통령내외가 6일하오 이번 巡訪의 마지막 기착지인 마닐라공항에 도착,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있다. 【TV中繼】

建設·마키팅 第3國진출

南北 최고책임자 會談·유엔加入 지지

【방콕=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과 프렘·틴술라논 泰國首相은 6일 낮12시(이하한국시간) 공동성명을 발표, 『全대통령은 韓國정부의 平和定着노력에 대해 泰國정부의 계속적인 지지를 확약받았다』고 밝히고 프렘首相은 韓國의 統一이 對話를 통해 平和的으로 성취되어야한다는 泰國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南北韓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지지했다고 선언했다.

全대통령이 3泊4일간의 泰國공식방문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떠나면서 발표된 18개항의 공동성명은 또 『두 영도자는 개발도상국인 兩國의 특별한 필요와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通商및 經濟協力을 일층 확대, 다변화할것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보다 원활한 通商노력이 兩國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민간및 정부레벨에서의 교류와 접촉을 장려,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성명은 『프렘首相이 泰國의 제5차經濟社會개발계획을 설명하고 동계획의 각종 사업에 韓國의 참여를 환영했으며 全대통령은 韓國정부가 泰國의 人的자원개발과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할것임을 밝혔다』고 밝히고 『정보교환및 공동연구활동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증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韓·泰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泰國의 經濟社會개발계획에 포함된 농업·기초산업·중공업·광물탐사및 개발사업에 대해 韓國민간부문의 합작투자를 촉진시키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히고 『특히 건설및 마키팅분야에있어서 韓國과 泰國이 제3國에서 상호 협력할수 있는 여지와 기회가 존재함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트뤼도加首相 9월訪韓

英聯邦首相會議참석길 韓·加頂上會談 예상

【터론토(캐나다) 4日=金明奎특파원】 피에르·트뤼도 캐나다首相이 오는 9월중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트뤼도首相의 訪韓이 이루어지면 全斗煥 대통령과 일련의 頂上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상호협력 증진문제를 포함한 광범한 관심사를 논의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트뤼도수상의 訪韓은 캐나다수상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믿을만한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트뤼도수상은 오는 9월30일부터 10월7일까지 濠洲 멜번에서 열리는 英聯邦 수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트뤼도수상이 『한국을 방문, 全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으며 이에대해 한국정부가 긍정적 반응을 표시한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양국간에는 外交경로를 통해 全-트뤼도 정상회담 날짜를 놓고 협의중인것으로 알려졌는데 全대통령이 15일간의 아세안巡訪에서 귀국한후 곧 최종 결정이 날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누가 트뤼도 수상을 수행하게될지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마크·맥귀간외상과 고위경제관리 몇명이 포함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나다정부는 한국과의 교역및 경제협력의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원자로, 비행기, 통신기술, 곡물 등의 공급시장을 한국에 개척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免稅點 18萬원으로 引上을"

"證券市場 實名制면 큰混亂"

國會財務委

國會財務委는 6일하오 은행民營化와 金利정책, 증권시장활성화대책, 營業株操縱대책 등 당면금융 재정시책에 관해 정부측으로부터 보고를듣고 질의를벌였다.

이날 李敏雨(民正)林鍾基, 李歡根, 金在昹의원 (이상 民韓) 李聖秀의원 (국민) 등은 ▲소득세의 免稅點인상등 稅制개편문제 ▲5백억원이상貸出업체 명단공개 ▲한일은행 민영화과정에서 자본금 8억원에불과한 일성신약이 20억원의 株를 매입한 경위 ▲최근 株價의 폭등원인등을 추궁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최근 株價가 폭등하는 이유는公職者 재산등록제실시에 겁을낸 고급공무원들이 재산도피 형식으로 증권에 투자하고있기때문이 아니냐 ▲증권시장에 實名制를 도입할 용의가없느냐 ▲현행 15만원인 소득세의免稅點을 18만원으로 인상할용의는없는가 ▲5월18일 재무위에서 5백억원이상 대출업체의명단을 밝힐수 없다고답변한뒤 5월19일에 50억원이상의 대출업체명단이 신문지상에 보도된것은 무엇때문인가고 물었다.

李承潤재무장관은 답변을통해 『현재 無記名制로 하고있는 증권시장에 갑자기 實名制를 실시할경우 혼란이 일어나기때문에 실명제 채택문제는 신중히 고려, 점진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선은행의 株式매입문제는 구체적으로 조사해 밝히겠다』고 답변을 미루고 『50억원이상 與信업체數는 밝힐수있으나 業體名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李장관은 주요업무보고를통해 앞으로 不動産投機가 재연하면 특정지역을 투기억제지역으로 재告示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住宅자금지원의 원활화를 위해 국내與信限度운영상 주택금융에대한 한도를 전체계획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확대하고 中長期福祉住宅자금등 실수요자의 買入자금공급이외에 下半期중에 연립주택등 집단住宅건설및 買入자금 4백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 2361

全대통령、記者회견 "忍耐로 平和努力계속"

金日成 언젠가는 軌道修正

"偶像化된 金日成父子체제완 對話곤란"

【방콕=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은 5일 『어느시점에서 金日成도 자신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을수없는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나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로써 平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3시30분(한국시간) 방콕外信記者클럽이 全대통령을 위해 마련한 두시타니(?)·타워호텔 16층 그랜드볼룸에서 주최한 오찬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연설을통해 이같이 밝히고 『열번찍어 아니 넘어갈 나무가 없다는 俗談대로 본인은 굳게 닫힌 北韓의 門을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두드리면서 한편으로 北韓이 전쟁을 도발하지못하도록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해 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泰國에 주재하는 약 2백명의 內外信記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會見에서 全대통령은 『한반도는 아직도 東北亞의 安定여부를판가름하는 열쇠이며 한반도平和는 東北아시아뿐만 아니라 東南아시아의 安定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생각, 이 지역의 평화실현을 위해서 1·12및 6·5平和제의를 통해 南北韓會談을 제안 했었다』고 설명했다.

全대통령은 『그러나 北韓의 金日成은 지난1일 平壤에서 열린 집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평화제안을 외면하면서 또다시 우리와의 對話를 거절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우리측의 平和提議를 金日成이 쉽게 수락하기 어려운 이유를 ▲金日成은 北韓에서 거의 종교적이라고 할수 있는 철저한 개인숭배체제와 아들 金正日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구축해 놓았고 ▲北韓의 전체주의적독재체제와 사회가 외부세계에 노출되고 開放됐을때 나타나는 體制붕괴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全대통령은 스탈린과 毛澤東등의 개인偶像化를 강요했던 蘇聯이나 中共에서 이들의 死後에 合理性과 實用主義的 경향이 대두될수있었음을 지적, 『길게보아 北韓도 결국은 합리성과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것이 본인의 예상』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韓半島의 平和를 위협하고 統一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는 金日成과 그의 아들 金正日』이라고 분명히했다.

全대통령은 아세안 5개국과의 새로운 協力時代를 여는 이번 巡訪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순방을 통해 모든 會員國들이 東北亞의 安定과 平和維持를 위해 한반도평화정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데 대해 크게 고무됐다』고 밝혔다.

"한국、日의 好敵手로 頭角"

日紙들 全대통령 아세안巡訪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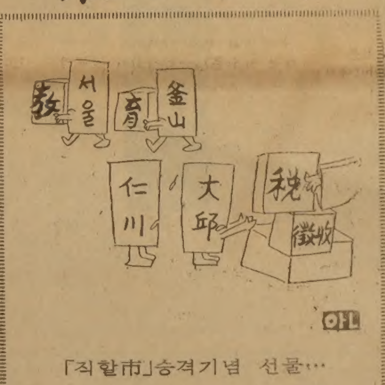
【東京6日=宋李彬특파원】 아사히(朝日) 마이니찌(每日) 닛게이(日經)등 일본의 유력지는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순방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동남아진출에 대해 특집 보도했다.

이들 신문들은 全대통령의 동남아순방을 계기로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의 시장을 개척하고 한국이 동남아에서 건설부문에 눈에 띄게 진출하고 있다고 현지특파원발로 보도했다.

닛게이 신문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아세안지역과 동북아지역을연결하는세력균형의 축으로서 성장, 발전하고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일본의 새로운 호적수로서 아세안에서 등장하고있다고 논평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동남아에 있어서 건설부문은 이미 일본을 앞지르고있고 자동차등의 진출로 전통적인 일본시장인 동남아에서 강력한 호적수로 한국이 등장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그 비결은 근면성과 고도성장에 따른 축적된 기술, 낮은 임금등이라고 강조했다.

社會漫評



「직할市」승격기념 선물…

쿠바、韓國代表 첫 초청

9월 아바나 國際議會聯盟총회에

국회는 오는 9월15일부터 23일까지 쿠바의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IPU(國際議會聯盟) 제68차 총회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해줄것을 요청한 IPU쿠바회장인 라울·로아 국회의장의 공식초청장을 접수했다.

쿠바측은 이초청장에서 한국대표단의 명단을 오는10일까지 쿠바와 IPU제네바사무국에 각각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쿠바入國비자는 쿠바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 있는 제3국어디서든지 발급받을수 있으며 만일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경우 아바나공항에서 직접 비자를받을수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쿠바측은 또 한국대표단이 체류할 숙소로 1級호텔4개를명시하고 이외에도 희망에 따라 방갈로시설을 숙소로이용할수 있다는뜻을전해왔다.

그런데 이초청장에는 한국대표단의 數에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없으나 국회는 1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할계획이다.

駐韓外軍 철수주장

蘇 브레즈네프 金日成에 電文

【모스크바5日AP=聯合】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브레즈네프는 5일 한반도문제에 언급, 『소련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군대 철수와 외부세력의 간섭없는한반도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재통일』방안을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

브레즈네프는 이날 北傀와의 상호우호·협력조약체결 20주년을 맞아 金日成에게보낸 전문에서 이조약이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주의국가들의단결과 행동통일은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僑民과 懇談

柳民韓黨총재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4일하오(한국시간5일하오) 브라질사웅파울루市韓人會館에서 僑民대표들과 간담회를갖고 僑民들의 애로사항및 본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등을 청취했다.

全大統領 아세안巡訪日程

▲상오=韓·比 1次頂上회담 ▲하오=기자회견 ▲〃=僑民리셉션 ▲〃=無名용사비및 한국戰參戰용사비 헌화 ▲〃=古蹟地 시찰 ▲〃=대통령내외 주최만찬

地平線

「크루프」라면 독일에서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재벌의 하나다。이 크루프재벌의 강철회사는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동독과 합작으로 綿방직공장을 짓고있다。서독의 잘츠기터 강철회사는 동독으로부터 4천3백만달러(2백92억여원) 짜리 암모니아탱커 주문을 받았다。지난 3월15일 서독의 라이프치히에서 크루프의 한간부는 동독기자들에게 『해가 갈수록 동서독은 서로 더 잘 알게됐다』고말했다。

▼이날 라이프치히에서는 동독공산당수 호네커도 참석한 가운데 무역박람회가 열렸었다。호네커가 여기에 참석한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동서독사이의 무역은 왕복을합해서 작년에 9억달러(6천1백20억원) 나됐다。『동서독무역은 최근 몇햇동안 폭발적으로늘어났다』는게 서독의 양독관계성 대변인의 말이다。작년엔 재작년보다 18.7%나 뛰었다。

▼서독은 동독에대해 해마다 이자없이 4억2천5백만달러의 차관을 주고있다。적자를 보는 동독이 서독물건을 살수있게해주자는 것이다。그래서 서독은 이제 동독 최대의 무역상대자가 돼고있다。동독으로서는 공업원료수입을위한 달러를 벌어들이기위해 서독과의 무역에 의존하고있다。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얘기다。

▼같은 분단국가지만 金日成을「어버이」로 추켜세우는 북괴와 우리가 맞서있는한반도는 독일과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걸 새삼 느끼게 된다。그러나 동북아시아에도 「변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미국과 중공이 군사협력관계까지 발전시킬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새로운 「가능성」을 내다볼만한 단계에 접근해가고있는 듯한 인상이다。

▼소련의 모스크바방송은 지난2일 『중공이 주한미군을 말로는비난하면서 실제로는 동의하고있다』고 욕했다한다。한편 우리정부는 미국이 중공에 대해 『그무기가 북괴에 흘러가지는 않을것』이라고 논평한것으로 알려졌다。北京과 東京사이에 항공노선이 열릴 경우 서울을 지날것이냐 하는 문제도 주목거리가 되고있다。

▼「6中全」에서 개방체제를 굳힌 중공의 대세도 그렇고, 긴 눈으로볼때 동북아에서도 金日成의 봉쇄체제가 지탱하기 어려운쪽으로 갈 가능성은크다。우선은 시간을 기다리는수밖에 없지만 어쨌든「實利」를위해 모든 가능성을 짚어보는 유연성을 갖는게 좋다。그런 뜻에서 중공과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 두고두고 주목할필요가 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10
은 : 온스당
US 8.31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 환영
디자이너 MR. 김
606 BLOOR ST. W.
☎ : 535-4441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GM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IATA

월부적금제 실시
(푼돈 모아 목돈으로 여행 가능)
●서울단체 매일출발 CPA, KAL JAL
여름철은 붐비니 미리왕복예약하십시오.
●이민및 방문초청상담, 초청장 작성
●동남아 각처 단체요금
●월부및 각종 크레딧 카드취급
●저렴한 국내선 SKYBUS및 SEAT SALE
※ 모국방문산업시찰단모집 : 9월27일 출발
(3박4일 산업시찰 포함)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IL4
김찬범 536-2155·2156 (R) 429-7580

the Permanent
◇주택
●Finch/McCowan $134,000
●Queen/Woodbine $139,000
●Victoria Pk./Danforth $149,000
◇사업
●가게(주 $4,000)+건물 $99,000
●꽃가게 (1주6일 · 10am~6pm) $14,500
★주택 2차 모기지를 1차 모기지 이자율로 알선해 드립니다.
481-3443 (사무실)
745-5485 (집)
1901 Yonge St. Toronto
황순일
the Permanent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Real Estate.

蘇, 유사시 波侵攻 強力암시

蘇-波공동성명 蘇에 忠誠·우호조약이행 再確認

◇그로미코—카니아會談 폴란드를 방문중인 蘇聯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가 폴란드 공산당 제1서기 스타니스와프·카니아ⓑ를방문, 회담하고 있다. 【바르샤바 4日AP電=聯合】

【모스크바·바르샤바5日AP=聯合】소련과 폴란드는 5일 그로미코소련외상의 3일간에 걸친 바르샤바방문을통해 결산하는 장문의 공동성명을 발표, 폴란드지도층의 대소충성및 양국간 우호조약의성실한 이행을 재확인함으로써 유사시 소련의 對波무력침공 가능성을 강력히 암시했다.

그로미코는 폴란드 黨中央委와 각료평의회초청으로 지난3일부터 3일간 바르샤바를 친선방문, 카니아黨 제1서기, 보이체흐·야루젤스키 수상등 폴란드지도층과 오는 14일 개막되는 폴란드黨大會와 관련한 일련의 회담을 가진뒤 이날 모스크바로 귀국했다.

蘇聯과 폴란드는 이날 모스크바와 바르샤바서 동시에 발표한 이공동성명을통해 양국이 상호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유지할것을 새로이 다짐하는한편 상호우호협력조약에따라 양국관계를 계속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르샤바의 관측통들은 소련이 체코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침공을 단행할때에도 그들의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번과 똑같은 태도를 표명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國家로 남아" 蘇、아프간侵攻정당화手法 재현

이성명은 또 폴란드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이익을 수호하는것은 폴란드의 독립과 주권、인접우호국들의 안보및 신성불가침성과 불가분의 관계에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폴란드는 과거부터 그래왔던것처럼 앞으로도 사회주의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남아있을것』이라고 말했다.

英·蘇外相회담개막 아프간事態 회의적

【모스크바6日UPI=聯合】아프간사태의 평화적타결에 관한 구공시제안을 휴대하고 소련을 방문중인 영국외상 캐링턴경은 소련측의 냉담한 반응으로 訪蘇성과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6일 소련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와 회담에 들어갔다.

日 自民黨패배

東京都議會 52석획득 過半미달

【東京6日=宋孝彬특파원】앞으로 일본정치의 향방을점칠 東京都 의회선거가 5일 실시되어 집권 自民黨이 재석 1백27석중 과반수 64석에 12석이모자란 52석을획득, 패배했다.

자민당은 입후보자의 난립과 각 파벌간의 과열선거 경쟁으로 현재의 55석에서 3석이 준 52석을 차지했고 사회당도 18석에서 15석으로 의석이 줄었다. 반면에 공명당은 24석에서 27석으로, 공산당은 11석에서 16석으로, 민사당은 3석에서 5석으로 각각 의석이 늘었다.

英·이라크、항공기合作

호크訓鍊機 연3백대生産규모

【런던6日UPI=聯合】영국항공사와 이라크는 연간3백대의 호크전투훈련기를 만들어 낼 수있는 18억달러상당의 항공기제작공장을 이라크에 세우기로하는데 거의 합의했다고 런던의 선데이·타임즈紙가 5일 보도했다.

기제작플랜트의 이라크건설문제가 현재 영국에 머물고있는 30명의 이라크기술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항공사의 임원들은 이 계약을 성립시키기위해 지난 3월이후 정기적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왔다.

英國정부는 그러나 이라크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때까지는 무기수출에필요한 정부의 허가가 나지않을것이라고 英國항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선데이·타임즈는 전했다.

영국 항공사와 이라크간의 항공기제작 플랜트건설 계약이 체결될경우 이는 아랍국가에대한 무기수출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있는 이스라엘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英 人種 暴動 이틀째

리버풀서 警察 百여명負傷 鎭壓불가능 상태

【리버풀6日路通=聯合】영국동북부항구도시 리버풀에서 연이틀째 계속되고있는 인종폭동은 6일아침현재 『진압불가능』상태로 번지고있으며 폭도들과의 충돌과정에서 지금까지 1백명이상의 경찰이 부상했다고경찰대변인이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폭동발생지인 테스테드구역에서는 이틀밤에 걸쳐 흑인청소년과 일부 백인불량배들이 곤봉을 휘두르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경찰을 공격하는한편 인근상가와 나이트클럽등에 방화, 화염이 치솟고 있다고 말하고 경찰은 이를 진압하기위해 진력하고있으나 6일아침까지도 전혀 사태를 장악하지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리버풀의 인종폭동은 3일밤 런던교외의 아시아계 주민거주구역에서 발생한 폭동에 영향받아 연쇄적으로 발생한 집단투쟁으로보인다고 말했으나 이같은 사건을 야기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못하고있다.

對波 援助합의 失敗 코메콘第35次 회의

【소피아5日路通=聯合】코메콘(東歐상호경제원조회의)은 4일 가맹국간의 5개년경제계획조정、폴란드에 대한 공동원제등 주요안건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3일간에 걸친 35차연례회의를 폐막했다.

中共에 2억엔借款 日, 제련소建設지원

【東京5日AP=聯合】일본은금년초 경제침체로인해 취소됐던 중공의 2개 대규모 건설계획을 부활시키기위해 정부차관으로 2천억엔(9억달러)을 중공에 제공할것이라고 일본 유력지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정부의 엔차관이 上海의 寶山제철소건설과 大慶석유화학 공장건설계획에 사용될것이라면서 각省에서 구체적인 차관계획을작성, 내주중에 이를 中共당국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르、西部國境 은신

強硬派에 항복않겠다

【베이루트5日AP=聯合】3주이상도피생활을계속하고 있는바니·사드르전대통령은 한 中東잡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자신은 집권회교강경파들에게 항복하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八日」이란 이잡지는 바니·사드르가 지난6월12일 공석에서 자취를감춘며칠후 이란西部 쿠르디스탄省의한 은신처에서 인터뷰를 했으며『나는 모든 이란인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기를 요청한다. 나는 팔레비를 쫓아냈던 이란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비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과 충분히 대항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것으로 이잡지는 보도했다.

인터뷰를한 편집자의 註에는 현재 바니·사드르의 행방은 묘연하지만 그가 인터뷰를 허용했던 지난 6월16일에는 분명히 쿠르디스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기자는 바니·사드르가 이라크와의 전선에서 멀지않은 곳에 있으며 그는 아직 군복을 입고있고 약간의 지지자들과 무자헤딘 무장병들의 호위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美人은 핫도그를 즐긴다 81년도 미스유니버스대회에 출전하는「미스·코리아」眞 李垠靜양(오른쪽2번째)등 5명의 미녀들이 4일「뉴욕」의 한 불런에서 베풀어진 파티에서 핫도그맛을 즐기고있다. 왼쪽으로부터 美國의「킴·실브리드」양「타이」의「마수파·카트프라폰」양「싱가포르」의「플로렌스·탄」양 李양「말레이지아」의「오드리·로·인·풍」양。【뉴욕4日AP電送=聯合】

얼룩진 黃金連休 美독립記念日 5백명死亡

美독립 2백5주년기념일인 4일을 전후해 3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기려는 여행자들이 일제히 고속도로로 몰리는바람에 美전역에서 4백∼5백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것으로 밝혀졌다. 【뉴욕6日UPI=聯合】

海外토픽

★美독립기념일휠체어탄채 브래디 첫外出나서

지난 3월30일 레이건대통령과 함께 피격、중상을입고 입원중이던 제임스·브래디 백악관대변인이 美독립기념일인 4일 처음으로 병원을 나서 백악관에 모습을 나타냈다.

브래디대변인은 이날 부인 사라여사및 의사1명과 함께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채 백악관2층발코니에 모습을 나타내 백악관잔디위에서 전통적인 독립기념일연회를 베풀고있던 2천여명의 백악관 관리와 그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어보였다. 레이건대통령이 버지니아의 친구집에서 열린 부인 낸시여사의 생일파티에 참석한후 백악관에 귀임하기전에 병원으로 되돌아감으로써 그와 만나지는 못했다. 【워싱턴=UPI】

캐나다·한국 交易비중커진다

트뤼도 加首相의 아시아觀

鄧小平 현실적感覺 고무적 / 蘇聯의 팽창主義 不安要因

피에르·트뤼도 캐나다수상은 길고 험난했던 집권기간동안 운동을 좋아하고 거만하지만 선견지명이 있고 거기에 플레이·보이 기질까지 겸비한 다채로운 얼굴의 지도자로 이미지가 부각돼있다.

트뤼도는 아시아에서 생소한 인물은 아니다. 그는 59년 일본과 베트남을 방문했고 60년에는 6주간 중공여행을 한경험을토대로 「중공의 두 바보」란 共著도 냈다. 그후에도 그는 수상재직중 수차례 아시아를 여행한바 있다.

최근 캐나다 기자와 가진회견에서 트뤼도는 자신의 對아시아政策을 말한다. 【外信部】

―요즘 아시아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아시아는 지난 10년동안의 격동기에 비교하면 안정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긴장상태가 아직 존재하고있다. 베트남의 캄보디아점령과 소련의 對아시아정책, 특히 아프간침공은 세계의 큰 관심사로 남아있다. 캐나다는 소련의 아프간침공을 통렬히 비난한바있다. 소련이 東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것도 균형을 깨려는 움직임이다. 캐나다가 아시아및 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찾아가고있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은 캐나다 제2의 교역상대국이며 중공、한국、濠州、말레이지아、인도등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있다.

―아시아의 지역안정의 첫걸음은 캄보디아문제 해결로 보는 이들이 많은데.

▲캄보디아침공등 베트남의 인도차이나반도에서의 팽창주의는 동남아 불안의 근원적 요인이다. 우리는 캄보디아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지지한다.

79년과 80년 유엔총회 캄보디아문제해결안의 공동제안자이다. 캄보디아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도 마찬가지다.

캐나다는 캄보디아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민주적방법으로 표시할수있을때까지 유엔결의안의 실현을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毛澤東사후 중공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나.

▲가장 고무적인현상은 鄧小平부주석을 비롯한 중공지도층에 폭넓게 경제현실주의 감각이 엿보이는 점이다.

캐나다는 중공과 깊은선린관계에 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분야에도 적극적 협력관계를 맺고있다. 지난 2년동안 2백50명의 중공중견학자들이 캐나다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배치돼 연구중이다.

―毛澤東이후 중공은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맹국들을 찾아 서방측에 접근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중공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인가.

▲이경우 동맹이란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지 않는다. 서방국들이 중공을 군사동맹국 후보로 평가하고 있지않을뿐만아니라 중공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중공과 서방국가와의 관계라면 정치및 경제적 협력이 주종이다. 중공지도자들은 서방과의 관계강화를 장기적으로 밀고나갈 과제라고 말한바있다. 주는 중공과 관계강화를 주저하지 않겠다.

―미국은 중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 특히 인도양에 해군력을 증강하고있다. 이지역에서 캐나다군의 역할도 증가될 것인가.

▲소련의 아프간침공과 인도양 소련함대증가로 아시아의 전략적 상황은 새로운 위협요소를 가중시켰다. 서방국가들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다. 캐나다는 여기에 간여하고 있지않으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아프간의 소련군 주둔등 이지역의 군사행동과 연결시켜서 인도양해군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環太平洋개념에 대한 소견은.

▲우리는 태평양국가간의 협력증대를 위한 가장 좋은 접근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논의에 참가해왔다. 계속해서 이 구상에 대한 협의에 참여할 생각이다.

―앞으로 10년간 태평양지역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망은.

▲80년대도 그랬지만 앞으로 태평양지역에 대한 경제활동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난 10년간 서부캐나다쪽으로부터의 對태평양지역수출은 평균수출성장률을 넘어선 신장세를 보였다.

내년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대한 수출규모가 對서구수출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캐나다는 많은 아시아系 이민과 학생들을 받아들였고 최근에는 베트남 난민을 상당수 정착시켰다. 캐나다의 이러한 對아시아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는가.

▲캐나다국민의 절대다수가 이민온 사람들이다. 최소한 건국초기에 있어서 캐나다경제발전의 많은부분이 계속적인 이민행렬에 의해 좌우되었다.

최근들어 캐나다 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아시아系학생수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와 캐나다간의 친선과 이해의기초를 다지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가. 복합문화국가인 캐나다는 다양성을 자랑하고있으며 이다양성은 캐나다를 살찌게 해준다. 수년동안 아시아인의 캐나다이민으로 확립된 밀접한 관계에서는 오직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

韓泰 공동聲明 〈내용〉

▲全斗煥 대통령과 프렘수상은 특히 동북아및 동남아를 중심으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검토하고 양국이 위치한 각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상호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아시아및 전세계의 평화안정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全대통령은 동북아시아정세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동지역의 평화 안전유지와 한반도에서의 전쟁再發방지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여왔음을 밝혔다. 프렘수상은 全대통령의 설명에 謝意를 표하고 韓國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찬양하였다.

프렘수상은 全대통령에게 동남아시아정세와 함께 아세안의 동남아시아 평화·자유·중립지대 설치에관한 꽐라룸푸르선언에 따라 泰國이 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위하여 취한 조치들을 설명하였다.

全대통령은 동 꽐라룸푸르선언의 목표를 지지하였다.

두영도자는 동북및 동남아시아의 평화안정및 발전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全대통령과 프렘수상은 캄보디아의 현사태에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캄보디아문제가 유엔총회의 관계결의에 의거하여 정치적으로 일괄해결되어야한다는데 합의하였다.

▲全대통령은 아세안이 지역내에서 수행하고있는 적극적이고도 중요한 역할및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들간의 긴밀한 기존 雙方관계에 비추어 또한 韓國과 아세안간에는 민간 경제계지도자회의가 있음에 유의하면서 韓國정부가 경제및 기술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하겠다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두영도자는 韓國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互惠的인 협력관계증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全대통령과 프렘수상은 인도지나 難民, 특히 타이내의 궁핍한 캄보디아 피난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캄보디아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이들 불행한 難民들에 대한 인도적지원이 계속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全대통령은 泰國 정부가 난민의 자발적 귀환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캄보디아 난민의 양도할수없는 본국 귀환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지지하였다.

全대통령은 또한 泰國에게는 이들 캄보디아 난민을 泰國 영토내에 정착시킬 하등의 의무가 없다는점을 인정하였다.

全대통령은 또한 泰國정부의 難民 구호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프렘수상은 大韓民國정부의 그와같은 구호금품제공과 인도적 고려에 대하여 泰國정부와국민의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全대통령은 韓半島정세를 살피면서 韓國의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해 韓國정부가 경주해온 긴장완화및 평화정착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全대통령은 특히 韓國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방도는 81년1월12일자및 6월5일자 제의대로 南北韓최고책임자간에 직접 회담을 개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全대통령은 韓國정부의 평화정착노력에 대하여 泰國정부의 계속적인 지지를 확약받았다. 프렘수상은 韓國통일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泰國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이러한 직접회담을 지지하였다.

▲全대통령은 그간泰國정부가 유엔등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여 준데대해 謝意를 표명하였다. 두영도자는 앞으로도 상호관심사에 관하여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全대통령은 南北韓의 유엔가입이 한국의 평화통일 달성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프렘수상은 유엔헌장의 보편성원칙에 입각한 南北韓유엔가입의 실현노력을 지지하였다.

▲두영도자는 세계 경제현여건이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점에 유념하였다.

두영도자는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고조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경제여건의 개선과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개발을 위한 국제경제협력에 관하여 국제협상이 조속히 개시되기를희망하였다.

▲全대통령과 프렘수상은 지난 수십년동안 발전되어온 전통적우호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두영도자는 韓國과 泰國양국간의 경제관계가 상호의존과 보완성을 심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관계의 강화가 양국에 상호이익이 된다는점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인 양국의 특별한 필요와 비교 우위를 고려하여 통상및 경제협력을 일층확대 다변화할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그들은 보다 원활한 통상노력이 양국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여 민간및 정부레벨에서의교류와 접촉을 장려,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두영도자는 제4차 통상장관회담이 81년 7월하순 서울에서 개최될예정이라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프렘수상은 泰國의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설명하고 동계획의 각종 사업에 韓國의 참여를 환영한다고언명하였다. 全대통령은 泰國정부의 경제사회개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대한민국정부가 泰國의 人的자원개발과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할것임을 밝혔다.

●두영도자는 또한 정보교환및 공동연구활동을 포함한과학기술분야의 협력증진에 합의하였다. 두영도자는 양국간의 통상및 투자증진에 있어 韓·泰國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담당하고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동위원회가 泰國의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 포함된농업기초산업·중공업·鑛物탐사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韓國민간부문의 합작투자를 촉진시키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들은 또한 특히건설및 마케팅분야에있어 韓國과 泰國이 제3국에서 상호협력할수 있는 여지와 기회가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지역사회및 농업개발분야와 관련하여 프렘수상은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정신、그리고 동 운동의 성공적추진에 관한 全대통령의 설명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프렘수상은 많은 泰國관리들이 韓國새마을운동을 시찰함으로써 양국간에 유익한 협력이 이루어지고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상호협력을 계속 증진하자는 全대통령의 제의를 환영하였다.

▲全대통령과 프렘수상은 泰國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韓國의 직접투자가 더욱 유익할것이라는 점에 의견을같이하고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全대통령과 프렘수상은 양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비추어 스포츠·예술·교육·매스미디어등 분야에서 양국 민간의 문화교류와 상호이해를 더욱 증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全대통령의 泰國방문으로양국간의 전통적인 우의와 상호신뢰를 재확인할수 있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이러한 우호관계를 보다 확고히 하기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메아리

외길 停年

국립정신병원의 安[illegible]과장이 지난 1일 40여년의 의무공무원직에서 정년퇴임했다. 의사자격을 갖춘 安씨의 박봉을 보다 못한 친지들이 개업을 권한적이 여러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거절을 했다.

거절의 이유인즉 직위와 보수 보다는 성실하게 일을하며 사는것에 보람을 느낄수있다면 그만이라는 것이었다.

요즘의 우리풍토는 직위와 보수를 바라지않고 외곬으로만 한길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비단 근래의 우리 사회풍토일뿐만 아니라 세계공통의 현상이기도 하다. 볕드는 곳만골라가며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직위와 보수를 탐할지언정, 응달에서 말없이 눈에 보이지않는 봉사를 보람으로 사는 삶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흔히 듣는 외국의 얘기이기는 하나 유서깊은 외국호텔의 문을 여닫는「도어·보이」중에는 어려서 취직을 하여 70노령까지 그 일자리를 지키며 세계에서 으뜸가는「도어·보이」임을 긍지로삼는 경우가 있다한다.

또 세계의 미식가들이 즐[illegible]는 이름있는 식당에서 손님들 술잔에 술만 따르며 평생을 바친것을 자랑스러워 할지언정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도 있다.

● 이처럼 눈앞의 이해득실이나 영화영달에 초연한채 한일에만 몰입해서 그일로 세계의 으뜸임을 자부하고 보람으로 삼고자하는 개인이 발을 붙일수 있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회는 안정되고 인간적인 사회라 할수 있지 않은가 싶다.

사실 우리사회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신분사회로서 특히 장인들은 가업과 신분을 세습해서 외곬으로만 살수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은 그와같은 역사적 전통에 반작용이라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꽃에서 꽃으로 넘나드는 꿀나비처럼 직장과 직업을 전전하여 언제까지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흔하게 보아온다.

그런 풍토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사는 삶의 기쁨을 보람으로 개업의 유혹을 뿌리치고 박봉의무공무원 길을 40여년 말없이 지켜온 安씨의 정년퇴직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생애가 더더욱 행복하게 가꾸어지기를 바라게 된다.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피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 각종 CABINET책상, ●사무용 학생용 타자기,
●각종 종이 테이프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 532-0111, 259-5820(R)

여러분의 삼복식품
①물오징어 BOX당 $12.95
②조기(굴비용) BOX당 $55.50
③물미역 BOX당 $44.50
④미역줄기 BOX당 $44.50
⑤당면 BOX당 $120.00
⑥냉면 BOX당 $45.80
⑦이면수 1 lb 당 $2.95 (½price)
⑧삼치 1 lb 당 $2.25 (½price)
⑨한국산고추가루 lb 당 $3.45
⑩한국산 동태 1 lb 당 $1.25
743-8270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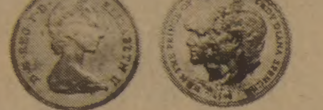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찰즈皇太子와 約婚女

20여日앞으로 다가온 英國「世紀의 祝祭」

畵 報

◇29일 신부 다이애너·스펜서양을 결혼식장인 성바오로성당으로 안내할 「유리마차」。



◇세계의 화폐수집가들을 들뜨게하고있는 결혼기념주화。앞면에는 엘리자베드英國여왕의 초상、뒷면에는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의 초상이 양각되어 있다。

◇지난6월18일 경마장에 나란히 모습을나타낸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

英國人들이 「世紀의축제」라고 흥분하고있는 찰즈황태자(32)와 다이애너·스펜서양(20)의 결혼식(7월29일)을 20여일 남짓 앞두고 현재 영국에서는 결혼식 무드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신문과 TV는 연일 「오늘의 두연인」 「결혼식 준비완료」 「승마경기장의 황태자와 약혼녀」 등의 표제로 두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7일부터는 영국왕립조폐국에서 기념주화까지발행하여경축무드를 고조시킬것으로보여진다。

현재 스펜서양은 엘리자베드여왕 母后의 저택에서 결혼예법및 궁중예법을 익히고 있으며 실질적인 황태자비로서 왕족들의 모든 행사에 참석、우아한 모습을 자주 나타내고 있다。

29일 결혼식을 앞두고 가장 기세를 높이고 있는 것은 기념품상들로 찰즈황태자와 다이애너·스펜서양의 초상이 양각되거나 그려진 기념도자기、연필、볼펜、만년필등은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동이나고있다。7일부터 발매될 기념주화는 세계 화폐수집가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는데 영국주화 5백만개、은화 25만개가 영국전역은 물론 세계 곳곳에 뿌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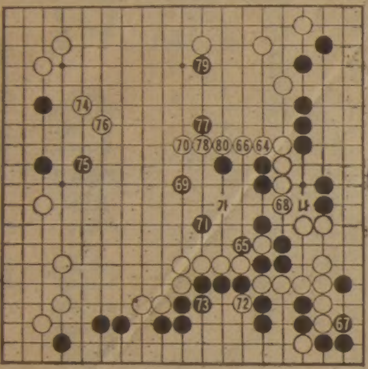
결혼을 앞둔 찰즈황태자와 약혼녀 다이애너·스펜서양의 모습을 화보로 묶어본다。

◇다이애너·스펜서양의 어린시절모습。그녀의 生家인 영국중부 샌드링햄의 파크·하우스 잔디밭에서 놀고있는 귀여운 모습이다。

◇한귀족의 결혼식에 참석후 교회를 나오는왕족들。왼쪽부터 스펜서양、엘여왕의모후、마거리트공주및 찰즈황태자。

제12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2局 第7譜 64~80 (각5시간 덤5집반)



白 (名人) 曺薰鉉 〈1敗〉
黑 (挑戰者) 徐奉洙 〈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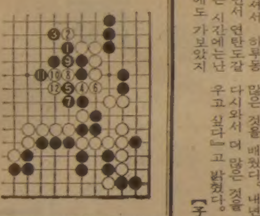
전보에서 白이 64로 끊어 막았을 때 도전자는 앞아들지못할 말을 불룩 뇌고 6분을 생각한끝에 黑65로 白한점을 잡아냈다。그리고도 뭔가 좀 시불만스러운 표정。

黑65로 66자리를 호구쳐나가 하기야 참고도의 黑1、3은 白4에 끊어 우는 대점으로 12까지되면 黑이 엷어 망해버리는 돌이다。

그렇더라도 黑65에 대해서는 국후 異見이 많았다。그중에서도 『65는 일단 「가」에 받아둔 다음 黑 「나」의 곳을 수와 66자리를 맞보고싶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었다。

아마 실리를 중요시하는 도전자인 까닭에 65로 따내고서 67、69까지를 설계했을지 모른다。하지만 다음순간 白70의 기발한、그리고 대담무쌍한 수가 떨어지자 黑은 71의 보강이 필요하다。

망망대해의 二葉片舟



그러자 白74、76이 어쩌면 70때부터 한 대규모작전이다。자、상변일대가 갑자기 광대한 白의세력권으로 되어갈판이다。도전자는 당황한모습。새삼스럽게 黑65、67을 후회한 거동도 없다。

이리하여 일전불사의 승부수는 쳤다。黑77에 달려 들어가 白78때 시黑79。白은 80에 꽈잇고서 黑79의 정을 살렸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77、79등은 망망대해의 二葉片舟。과연 어떻게 풍랑을 견디어낼 것인지 숨막히는 장면이다。【凡】

祖國愛와 한국人의 긍지 배웠다

「夏季학교」참가…在外同胞 학생들

發展相에 가슴부듯 내년에 또오고싶다

◇여름방학을 이용、조국을 배우러온 재외교포학생인 최부헌군(右)과 안승일군。

『보름간의 여름학교생활동안 조국에대한 참다운 사랑과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배울수 있었읍니다』 지난 보름간 문교부 주관으로 열렸던 「在外교포학생 夏季학교」에 참여한 최부헌군(로스앤젤레스거주 MIT大)、안승일군(로스앤젤레스거주)의 말이다。

6월21일부터7월4일까지 모국에 머물면서 국사、음악등을 공부하고 고궁과 박물관을 견학한후 慶州·浦項·蔚山등지로 2박3일간의 여행도 했던 이들은 『서울의 공기가 너무 탁하다』 『교통질서가 서있지 않다』고 말하기도했으나 『포항·울산공업단지를 견학하면서 발전하는 조국을 피부로 느꼈다』고 털어 놓았다。

『떠나올때 아버지가 우리나라 역사를 열심히 배워오라고 하셨어요。또 조국의 좋은점 나쁜점을 동시에 보아야만 참고국을 볼수 있다고 하셔서 하루동안 민박을하면서 연탄도갈아보고 틈나는 시간에는난지도 빈민촌에도 가보았지요』 로스앤젤레스에서 12년을 살았다는 최부헌군은 유창한 모국어로 말한다。그는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그리고 비무장 지대의 땅굴 견학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말하고 『의학을 공부해서 다시 고국을 찾겠다』고 다짐한다。

10년만에 고국에 왔다는 안승일군은 모국어 발음이 어려워 『자음 모음부터 다시 배웠다』고 말하고 『태권도가 우리나라 고유 운동이라는점알고 놀랐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에 농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었으나 『빡빡한 스케줄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번에 참가한 교포학생들은 모두 2백13명。재미교포가 1백65명、캐나다 45명、西獨3명등이다。

이들이 하계학교에 참가하게 된것은 지난 70년대에 미국을 방문했던 문교부관계자를 만난자리에서 학부모들이 『해외교포2세들이 조국을 잘알지못하고 우리나라 말도잃어가고있다。국가에서 조국의 언어풍속 역사를 배울수 있게해달라』고 청원、그 희망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4일 하계학교 수료직후 재외교포학생들은『너무 짧은기간이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내년에 다시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子】

첫 女性육종학博士

나의 이력서

〈題字 玄信圭〉

玄信圭 ⑮

71년 초봄의 미국행은 그어느때의 방문보다 각별한 의미가있었다。플로리다대학에서 열리는 IUFRO대회에 참석한대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임학박사를 탄생시킬 길을 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대규모 인공교배」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해달라는 회장 제미손박사(오리건대학 임과대학장)의 요청을 받고 李承潤임업시험장장과 동행했다。우리는 플로리다로 가는 도중에 애리조나의 선시티 마을에 내렸다。그곳엔 한국에 임무관으로 파견되어 산림정책을 자문했던 윌슨、커캄씨를 비롯하여 베버리지씨의 미망인、그리고 서울대 재건에 진력했던 슈나이더박사등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친면이 두터운분들이 오손도손 모여살고 있었다。그들을 만나 그동안의 안부를 전하고 후일담을 나누는일에 시간을 보낸것은 조금도 아까울것이 없었다。더우기 우리는 베버리지부인의 초대를 받았던 참이었다。마침 슈나이더박사가 출타중이어서 再會기회를 놓친것은 섭섭했으나 베버리지부인의 안내로 그랜드 캐년의 장관을 구경한것은 즐거움이었다。

IUFRO에서는 작은수확을 올렸다。앞으로를위해 젊은학자들은 이같은 국제기구에 발을붙이고 있어야할것 같았다。따라서 나는 洪性玉·任慶彬·沈相榮씨등 3명을 국제위원회 부의장직에 추천、회의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또 제미손회장의 요청에따라 폐막식에서 짧은 영어로나마 謝辭를했던 일도 내게는 짜릿한 추억의 한토막이다。

회의가 끝나는날 플로리다대학임학과교수이자 임목육종학 주임교수인 고다드박사를 찾아가 담판을 벌였다。고다드박사와는 학문으로 交通은 해왔으나 이번이 첫상면이었다。

나는 고다드박사에게 孫仁實이라는 여학생을 소개설명하고 이학교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도움을청하면서 『받겠소안받겠소』즉석에서 답변을 구했다。孫양의 성적을 들여다 본 그는 끝에 대학원 입학을 쾌히 승낙했다。입학만으로는 부족했다。『장학금을 주겠소안주겠소』 또한번 졸랐다。그는 그것까지 도승낙했다。나는 더없이 큰 선물을 받아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돌렸다。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임목육종학박사의 탄생을 예약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기때문이다。

渡美길 플로리다大에 孫仁實양 추천

孫양은 본래 서울대농대 가정과에 입학했던 재원인데 2학년때 임학과로 전과해서 우등으로 졸업하고 임목육종학을 전공하기위해 미국유학을 희망해왔었다。여자로서 입학을、그것도육종학을 끝까지 공부하겠다는 결의가 하도 기특하여 고다드박사에게 청을놓았던 것이다。

굳이 플로리다대학을 택한 연유는 그학교의 産學協同체제가 잘 갖춰져있어서 연구비 받기가 비교적수월하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69년 워싱턴서 열린 FAO 제2차 세계임목육종회의에 참석했던 각국의 육종학자들。시찰여행중 한국에서 보번 리지테다 소나무숲도 둘러봤다。앞줄 중앙 모자쓴분이 슈나이더박사, 둘째줄㊧에서 3번째가 筆者。

奬學金등 승낙받고 留學보내 77년學位받아

孫양은 그해 8월 플로리다대학의 연구조교로 떠났고 77년 박사학위를 받았다。그러나 당시의 유학풍조로 보아 그가 돌아올것인가 아닌가가 궁금했다。나는 미리 그의 의사를 떠보는 노파심을 보이기까지 했다。귀국후 그는 육종연구소에서 나와함께 2년동안 일을하다가 결혼으로 잠시 그만두었으나 아기를 키워놓은 다음 다시 연구실로 돌아올 예정이라하니 국내 첫 여성임목육종학 박사의 활동에 큰기대를 걸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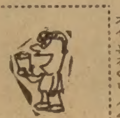
플로리다 대학에서 이같은 큰 수확을 거두고 노드캐롤라이나 대학으로 향했다。이대학과는 또다른 인연을 맺고있었다。量的유전학계에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南宮 박사가 교수로 재직중이었다。南宮박사는 독립운동가 南宮檍선생의손자되는 분으로 우리 육종연구소에도 3주 머물며 연구활동을 도와준 적이 있다。

또 姜啓遠군이 孫양의 경우와 같은 연으로 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었다。특히 나는 이대학의 産學협동체제가 탐이났던것이다。노드캐롤라이나대학의 산학협동은 미국내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것으로 알려져있는데 48개 펄프회사가 연구비를 지원하고있어 그돈만으로도 30여명의 대학원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姜군도 바로 그연구비의 혜택을 입은 한사람이다。기업체로부터 연구비지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한없는 부러움이었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강한藥物 삼키면 傷處나고 좁아져

食道狹窄



식도가 협착이 되는 경우는 식도암을 비롯 선천적기형을 들수 있으나 이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역류성식도염과 극약을 먹은후에 생기는 반흔성식도 협착을 들수 있다。

자살 목적이나 실수로 염산이나 양잿물같은 부식성약물을 먹었을경우 식도협착이 생기는데이러한약물을 삼키면 식도벽이 심하게 헐어짓무르는데 이 짓무름이 낫는과정에서 식도가 좁아져 버리는 수가많은 것이다。

강한 산이나 알칼리를 삼킨 직후에는 입안이나 목구멍에 심한 따가움을 느끼고 경부、흉부、명치뼈부근에 격통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부식성이 높아서 식도점막이 찢어지고 발열、호흡곤란 따위의 縱隔炎증상과 약물의 중독증상 따위가 일어나 며칠 안에 사망하기도한다。1주일 이상을 경과하면 식도의 염증이 어느정도 가라앉아 일단은 음식물을 삼킬 수 있게 되나 서서히 반흔성협착이 생겨 몇주 후에는 다시 음식물을 삼킬 수 없게 되는게 보통이다。미음마저 삼킬수없는 상태가 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식도의 천공、縱隔炎의 유무、폐렴의 합병따위를 알아내야한다。그러나 식도내에 조영제를 넣는다거나 내시경을 삽입하는 일은 2~3주 이내의 급성기에는 천공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한다。

瘢痕性협착 형태로 증세가 일단 안정되었을 때에는 X선검사나 내시경으로 협착의 정도와 범위를 분명하게 알아본다。반흔성협착이 몇년이고 오래 계속되면 식도암이 발생될 가능성이 극히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식제를 삼킨 6시간 이내에서 산(酸)을 마셨다면 산화마그네슘을、알칼리라면 연한 식초를 많이 먹여 중화시키는 응급처치를 해야한다。이와함께 물을 많이 먹여 이것을 다시 토하게 하는일도 중요하다。위 세척을 할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이러한 조치를 한다음에는 일단 입원시킨다。

동통에 대한 진정제를 비경구적으로 주고 3~7일 동안 경구섭취를 피한다。급성기에서 사망을 모면한 후에는 반흔성협착을 방지하는것이 치료의 주안점이된다。협착의 원인이되는 조직반흔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신피질 호르몬이、종격동염(縱隔洞炎)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물질 투여가 어느정도의 효과를 본다。협착이 심한경우 식도내강을 보존하기위한 삽관법으로 식도부지에 의한 확장법을 사용하는데 끈기있게 되풀이하면 오래된 반흔이라도 확장되어 증세가 좋아지는 수가많다。

朴炅南 〈醫博·漢陽大의대내과교수〉

모든 종이 위의 生 <141>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 놀이 ㊿

읽었다고 대답하려다 말고 나는 가만히 노영지의 눈을 바라보았다。그녀의 눈은 그녀가 매우 열심이라는 사실을 거짓없이 드러내고 있었다。그러나 나는 그녀가 나를 가르치려든다는 생각때문에 조금 기분이 나빴다。내가 말했다。

『미스노의 나이쯤에는 무엇에건 쉽게 감동하고 그러잖아?』

노영지는 금방 실망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녜요。그건 감동과 무갈등의 차원에서 이야기할수있는 성질이 아녜요。자각이죠。현실에 대한 뚜렷한 자각。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의 총체적인 파악이랄까。그러면서도 그 구조와 기능을 세밀하게 꿰뚫어보는눈。회기적이라는 말로 저는 이책에 찬사를 보태고 싶어요。한번 읽어보셔요』

「읽어 보았어요」라고、나는 그녀에게 또 한번의 실망을 맛보여 주기 위해 재빨리 말했다。그런 다음 의혹에 찬 그녀의 눈을 향해 내 독후감을 말해 주었다。

『내가 회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은 미스 노와는 오히려 반대야。성공적인 단문(短文)、시점의 교묘한 이동、과거와 현재의 중첩 등 신선한 소설적 기교랄까。환상적인가 하면 너무도 현실적이고、현실적인가 하면 또 어느새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작가의 놀라운 능력이지。영지가 말한 어떤 문제 의식은 도리어 낙후한 느낌이던데? 동어 반복이랄까? 배 고프면밥을 먹어야하고 졸리우면 잠을 자야 한다。그런 거야 이미 교훈이 아니잖아? 나쁜 조건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좀 나아져야 한다는 것쯤이야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그럴까요?』

나는 노영지의 눈이 새로운투지로 무장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그리고 재빨리 말했다。

『아뭏든 난 싸우는 전질색이야。대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무서워。그 사람들한테는 늘 때려부숴야 할 것들이 있거든』

『언니、이야기를 너무 비약시키지 마세요』

노영지는 얼핏 내 말에 뛰어들며 조금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그랬다가는 곧 심각운 표정으로 바꿔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함께 사는 기술예요。작게는 가족 공동체나 친구들의 모임에서부터 크게는 국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질서라든가、법이라든가、조직、구조、모두가 함께 사는 기술에 바쳐져야 한다는 거죠。그런 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대립의 세계관말씀을 하셨는데、싸우는 전질색이다、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무섭다고만 말할게 아녜요。누군들 싸우고 피 흘리고 부욱되거나 타도되는 일을 즐거워하겠어요? 하지만 보다 큰 화합을 전제할 때 우리는 늘 최소한의 자각 위에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문학이 이런 자각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동어반복이 아녜요。문학은 곧 작가적 양심의 표현이거든요。갈등의 표현이 없는 문학은 이미 문학이 아녜요。휴지에 불과하죠』

『바로 그런 독선(獨善)이 나는 싫은거야。문학도 필요하지만、사실 우린 휴지를 더 필요로하잖아? 가만、나 지금 미스 노하고 논쟁을 하자고 만난 건 아닌데』

얼핏 나는 팔목시계를 들여다 보고나서 다시말했다。

『들어가 보아야겠는데。미스노의고백은 언제든지?』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장석
☎ : 247-9347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 동부 :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덕이

「라스만스」회사 부설
소매경영학 연구소가 한국인 상점
경영자들을 위해 만든 경영학 강좌

RSI

〈라스만스·오브·필립 캐나다 유한회사〉는 소매업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깨닫고 소매상들의 수익을 높이고 경영방식을 능률화 하기위한 무료강좌를 마련했읍니다.
이 강좌는 어떤 종류의 소매업에도 적용이 되는 소매경영학 입문을 비롯, 보다 전문적인 경영학 코스도 계속됩니다.
이 강좌에서는 라스만스회사 담배를 더 많이 팔도록 권고받는다던가 하는일이 결코 없읍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 강좌를 거쳐나간 7백여 상점주들이 증명합니다.
이 코스를 시작할때 요구되는 디퍼짓 $25은 코스가 끝남과 동시에 되돌려 받게 됩니다. 수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재로 채택된 RSI편찬의 〈소매경영학〉책과 각종 부교재, 한국인 통역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평소에 상점을 경영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어려움— 그것을 RSI강좌가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KYOTO JAPANESE RESTAURANT
신장개업, 다양한 일본의 정통음식
뎀뿌라, 스시, 스끼야끼.
예약은 755-3010
영업시간 : 화~금 점심 12~2:30.
저녁 5~10:00
토~일 5~10:00(월요일 휴업)
주 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North of Eglington(오리올플라자내 무료 주차장)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863-9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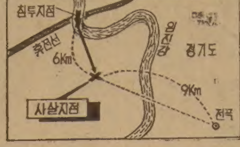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西部前線서 武裝共匪 1명射殺

장마로 불어난 臨津江타고 침투

장비 1百99點 노획

◇사살한 무장공비로부터 노획한 33종 1백99점의 각종장비들。



◇姜榮植대간첩대책본부장

대간첩대책본부 (본부장姜榮植중장)는중서부전선임진강상류를통해침투한무장공비 1명을 지난4일 하오5시께 경기漣川郡 全谷서북방 9㎞ (휴전선남방6㎞) 지점에서 사살했다고 6일하오 발표했다。

대간첩대책본부는 이번에 사살된 무장공비는 북에서남으로 휴전선을 관류하는 임진강이 최근계속된 장마로불어나자 초속4m의 빠른유속을이용、야음을틈타 부유물로 위장침투했고 아군전투복장 (육군중사) 으로 변장했었다고 밝혔다。

대간첩대책본부는사살된공비로부터카빈소총1정、실탄 1백19발、카메라 (일제 캐논) 1개、필름14통、나침의 1개、난수표1장、송수신기 1세트등 모두33종 1백99점의 장비를 노획했는데 이를 분석한결과 사살된 공비는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도보정찰대원으로 전방지역의 군사정찰과 인원납치·살해등의 임무를 띠고 침투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姜대간첩대책 본부장은 金正日체제를굳힌 북괴가 녹음기를 틈타 대남침투활동을 격화시킨것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협조를당부했다。

흙더미 무너져 女高生이 壓死

6일 새벽1시5분께 서울 銅雀區上道2洞204의20

서울市 종합監査

감사원

감사원은 6일 감사원3국장을 반장으로 1백20명의감사요원을 서울시에 투입、회계및 직무등 업무전반에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반은 오는18일까지 시청상황실에서 본청 각국실을 비롯 산하종합운동장 전설본부、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종합종말처리사업소등에 대한 물자구매、공사계약、예산집행등에 관한 보고및 인사등 시정전반에 관해 감사하게된다。

이번감사는 지난79년 3월5일~19일 사이에 실시했던 감사이래 서울시에대해선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기종합감사이다。

한편 감사원은이에앞서 지난달 8일부터2주일동안 서울시中區와 江東區에대해 종합감사를 했었다。

또한 서울시는 龍山區등 7개구청에대해 지난1일부터 감사원대행감사에착수、오는 9월말까지계속할예정이다。

장마前線 다시南下

한때 주춤했던 장마비가 6일 새벽 서울경기 강원지방에 또 1백㎜내외의 호우를 쏟아 서울에서는수해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竣工검사싸고 受賂 전區廳직원등 4명拘束

서울麻浦경찰서는 6일 연립주택 준공검사를 둘러싸고 뇌물을 받아온 전麻浦구청건축계장 宋桂奉씨 (32·현銅雀구청건축계장)와 세무1과서기 鄭洪浚씨 (38·현大峴2동사무소 서기)등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준 건축업자 鄭時極씨(44·서울麻浦區望遠洞450의4)와 金鍾賢씨(29·서울城北區敦岩1洞164)등 4명을 업무상배임、뇌물공여및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은혜를 갚자 自活대원 발벗고나서

輪禍낸 廢品운전사 풀려

좋은일 궂은일 도맡아 실어준 "내車"

7百80명이 合意金모아

검사는 무심 할수가 없었다。가난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갚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더구나 남의 도움이나 받아야 되는 사람들같이 알려진 자활근로대원들이 남을 돕고자 한다는데 이를 외면할수는 없었던 것。검사도 석방지휘서에 사인을하며 이들이 주고받는 「인정」이 오래오래 가기를 빌어주었다。6일하오

서울지검 朴相吉검사실에서 풀려난 사람은 고물트럭운전사인 崔朝壽씨 (33·서울麻浦區 上岩洞 482)。그리고 崔씨를 상대로 은혜의 구명활동을편 사람들은 자활근로대 제5지대 (서울西大門區南加佐洞)전지대장 吳榮吉씨(42)와 현지대 총무 金洪洙씨(43)、蘭芝島지대장 李喆在씨 (44) 등 두곳의 자활대원 7백80여명。

自活勤勞隊 제5支隊에 다시 웃음꽃

이처럼 많은 자활대원들이 崔씨를 「은인」으로 삼은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숨어있다。

고향인 충남洪川에서 중학 1년을 중퇴한 崔씨는 고향에서 농사를짓다 입대、지난 72년 제대하고 서울에 올라왔아 화장품외판원등을 하다 77년초부터 蘭芝島 폐품수집장으로 들어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崔씨는 당시 고물운반트럭의 조수로 일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79년엔 살고있던 집전세금을 빼내 중고트럭을 구입했다。

그후부터 崔씨는 서울 麻浦區 蘭芝島와 西大門區 南加佐洞 일대의 폐품수집장에서 대원들이 가려낸 고물을 시내 각 고물상에 직접 운반해주고 대원들로부터 운임을 받는 자가용 고물트럭운전사로 일해왔다。그러나 근로대원들은 崔씨를 동료요 은인으로 생각한다。자신들과 4년이상을 함께 일해왔기때문에 동료요、崔씨부부가 폐품수집장안에 가건물을 짓고살며 대원들이나 그가족중 응급환자가 생기면 崔씨가 도맡아 자신의 트럭으로 병원까지 실어날랐고 崔씨부인은 싫다는 내색 한번없이 대원들의 빨래를 해주곤했기 때문인이다。

崔씨는 고물을 운반해주고도 휘발유값、차량유지비와 최소한의 생활비외에는 돈을 바라지않았다。전가족이 함께 나서 벌어도 월30만원이상을 벌지못하는 자활근로대원들의 입에풀칠만 겨우하는 비참한 삶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崔씨가 지난달 23일 하오6시5분께 서울恩平區水色洞205의530 앞길에서 자신의 차인 경기8나5212호 타이탄 트럭을 운전하고가다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李起和씨(25)를 치어 전치 4주의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崔씨의 구속사실이 알려지자『崔씨를 구하자』고、두곳의 대원 7백여명이 모두 나선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기도했지만 이들의 궁핍한 생활형편으로는 쉬운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대원들자가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1만원까지 서슴없이 주머니를 털어 1백10만원을 마련、피해자 李씨에게 합의금으로 전달하고 합의서를 손에 쥘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2일 합의서와 진정서를 가지고 담당 朴검사를 찾아 눈물로 관대한 처벌을 탄원했다。

朴검사는 崔씨가、전과가 없는데다 피해자의 과실도 겹쳐 일어난 사고였고 합의까지 됐으므로 벌금으로 약식기소할 방침을 정하고 대원들에게『崔씨가 벌금을 낼 형편이 돼느냐』고 묻자 이들은『벌금도 우리손으로 모으겠다』고 나섰다。

朴검사는 사회에서 우범자들로만 인식하기쉬운 자활근로대원들의 의리와 정성에크게 감동、이같은사실을 부장및 차장검사에게보고했고 간부들도「은혜를 은혜로 갚는 넝마주이들의 선행」에 격려와 보답을 해주자면서 기소유예결정을 내린것이다。

특히 형사5부는 부장이하 전검사가 성금을모아 崔씨에게 석방후의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전해줬고 서울시경에서 운행정지된 崔씨의 트럭도 빨리 처분이 풀리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崔씨는 朴검사의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다시한번 삶의 희망을 갖게됐다』고 감격해했고 朴검사는 崔씨의 등을 두드리며『착한 사람은 언제나 보답을 받게되는것이니 앞으로도 선하게 살아가라』고 격려했다。

手配중 醫師가수술 20代여인 致死

【蔚山=黔】蔚山 南部경찰서는 6일 마약중독혐의로 수배를 받고있으면서도 자기병원에서 소파수술을하다 20대여인을 숨지게한 蔚山市新亭3洞516의2 성제의원 원장 李仲根씨 (69)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6월15일부터 마약중독혐의로 부산지검의 수배를 받고있는 李씨는 지난 4일하오6시30분께 자기병원에서 金粉子씨 (29·蔚山市南牧洞 돌안아파트11동306호)에게 소파수술을 해주다 주사쇼크로 이날하오7시께 金씨를 숨지게 했다는것。

유괴 國校2년생 74日만에 歸家

【利川=黔】지난 4월 21일 상오11시30분께 경기도 利川邑 中里 徐熙동상 앞길에서 이마을 李東錫씨 (42·한전직원·利川邑 中里287의17)의 장녀 자경양 (9·利川南국교2년)이 피아노 교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 만화구경을 시켜주겠다는 崔鍾權(32·주거부정)에게 강제로 끌려가 장소를 알수없는 외딴집에 갇힌채 74일동안 감금생활을 하다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유괴범崔鍾權 검거 자경孃 유괴사건

【崔鍾權기자】

한편 李자경양 유괴감금사건수사본부 (본부장南宮珪利川경찰서장)는 6일낮12시께 자경양을 유괴·협박한 崔鍾權(32)을 京畿도華城군 梅松면金谷리 360李창우씨(49) 집 앞에서 검거、利川경찰서로 압송했다。

한국일보 詩壇

울지 않는 울보

崔聖九 先生의 하늘에

李良求

더없이 눈부셨다는 어제의 하늘은 잠이
깊어가고
수많은 때 갈라지고 부서져가는
이 밤엔 한 조각의 빛도 없는데
槿花가 좋은 나는 白沙場의 한 모래알。

소리없이 울고 울며
큰 눈으로 집에 가는 나는 채
굶은 등뼈에 배어 있는 어머니는 쇠
더 추운 곳으로 날 떼밀은 아버지는 쇳
소리。

가라앉히고 가라앉혀도
이렇듯 용솟음치는 응어리가 있느니
하늘아、내 붉은 울음은 네가 다먹어라
좀더 기다렸다가 땅아、너는 半숟갈의
밥을 먹어라。

어쩌다 웃음나면 어머니가 그립고
아무 것도 그 아무 것도 제대로는 모르
지만
이 나라의 푸르른 하늘은 아는
이 나라의 흙은 아는
총칼도 낮잠재우면 나는 상쇠。

流星의 賦

<12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⑩

이수 (李銖)를 죄인으로 모는 것은 삼윤을 파멸시키기 위한 동인들의 모략이란 말이 퍼지기도했다。그러니 김성일을 비롯한 동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수의 옥사를 성립시켜야만 했다。이런 까닭으로 백방으로 방책을 강구하고 있던 중、진도군의 이속 (吏屬) 으로 있던 송모 (宋某) 란 자가 나타나

『내가 들면 이수의 옥사를 기필 성사시키겠다』

고 장담하고 나섰다。송모는 이수에 의해 파면된 자로서 이수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터였다。

송모는 옥에 가두었다。그랬더니 그자가 수단을 쓴 것인지 이수의 관련자로서 불려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때까지 완강하게 자복을 안하던 증인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수가 쌀 백석을 실어다 장세량 (張世良) 의집에 두었다가 삼윤 (三尹) 의 집으로 나누어 보냈다』

고 진술했다。

장세량은 그런 일이 없다고 끝내 부인했다。그런데도 아전 송모등의 진술을 내세워 삼윤을 파직시켜버렸다。

그러나 임금은 석연할수 없었던지 윤두수를 불러 뇌물 수수 여부를 물었다。

『이수는 신 (臣) 의 외사촌입니다。집에 노모가 있기로 종종 해물 (海物) 을 선사받은 적은 있사오나 쌀을 받은 적은 없읍니다』

윤두수의 대답이었다。

임금은 그해의 세말 은전 (恩典) 을 베풀어 윤두수、윤근수、윤현을 다시 서용 (敍用) 하라는 영 (令) 을 내렸다。

『이수의 옥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받은 자를 복직시키다는것은 정사의 체모가 아니다』

하는 반발이 동인편에서 일었다。

『이수의 옥사는 원래가 억울한거다』

하고 대사간 정철이 버텼다。동인들은 정철을 사당 (邪黨) 이란 말까지 써서 극구 비난했다。

그런데 전라감사로 있다가 해임되어 고향 파주(坡州) 에 돌아가 있던 심의겸이 다시 조정으로 들어갔다。동인들의 흥분은 거의 절정에 달했다。사헌부에선 심의겸을 소인이라고 하고、김계휘、정철을 간악한 무리라고 규탄한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그 기세에 눌려 전에 서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자들은 물론이요、벼슬을 구하는 자들이 대거 동인편에 붙었다。

대사헌 이식 (大司憲 李拭)、집의 홍혼 (執義洪渾)、장령 (掌令) 정희적등은 적극적으로 심의겸과 그 동류들을 헐뜯어 서인들의 관로 (官路) 를 막으려고 했다。

이발、김우옹등은 사헌부의 상소가 너무나 지나치다고 하여 정희적등을 논란했는데 이것이 더욱 동인들의 기세를 올리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어쨌든 이이는 다시 조정에 불려나와 대사간의 직에 있었는데 병으로 인해 와석중에 있었는데도 금기야 동인의 횡포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다。동서의 화합을 위해 갖가지 조정책을 쓴 그로서도 안하무인격으로 서두는 동인들의 행패를 좌시할수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동서타파 (東西打破) 에 관한 상소를 올렸는데 그 문면이 너무나 과격하여 임금의 비위를 거슬렸다。임금은 이이를 해임하라고 명령했다。이이는 다시 하야 (下野) 할 밖에 없었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오전10시30분~ 오후7시
714 BLOOR ST. W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illegible]: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743-8224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 예 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033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8-5163 277-2394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241-2544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30 금요오후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925-852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옥희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업	주일 1: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백낙순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466-4621 466-9511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백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30 일요오후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자유감리교회	여용순	오전11시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생명의전화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635-6664 마음의양식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全美오픈卓球의 意味 ①

中共 참가 世界水準대회로

한국팀 複式서 中共깨뜨려 심리적 壓迫感에서 벗어나

美洲에 새로운 국제탁구무대가 개최되고 있다。 클럽팀들의 친선경기수준에 머물렀던 캐나다와 美國오픈 탁구대회가 81년 세계선수권챔피언인 中共、준우승국인 한국이 동시에 참가함으로써 전례없이 전세계탁구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全美오픈탁구선수권대회는 中共과 한국、兩強의 국가대표주전들이 대결、유고 세계선수권대회서와 같은 긴장감속에 높은 수준의 경기를 펼쳐 새로운 세계탁구경쟁무대의 형성을 실감케 했다。

무엇보다 이번 全美오픈탁구선수권대회서 거둔 한국탁구의 큰 성과는 남녀복식에서 세계최강의 中共조를 깨뜨리고 우승、中共에 대한 뿌리깊은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적어도 탁구종목에서만은 中共을 능가할 기술을 가진나라는 없다。 中共선수들의 기술은 바로 神技』라는 찬양가운데 시작된 全美오픈에서 한국의 黃男淑·安海淑조는 中共의 童玲·張德英조를 21-16、21-16으로 꺾었고、金浣·劉時興조는 세계선수권 복식우승조인 李振恃·蔡振華조를 21-19、18-21、21-19로 격파、코트를 겹겹이 에워싸고있던 관중들에게 한국탁구의 지울수없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全美오픈 탁구선수권대회는 51회라는 오랜전통에도불구하고 美國이가진 탁구전력의 약세로 그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금년들어 기로 최강 中共이 全美洲지역을 정책적인 「스포츠외교의 무대」로 재인식하게됨에따라 美洲에서 거행되는 오픈 탁구대회의 성격도 급변하게 되었다。 中共은 北歐에 이어 美洲에서 탁구회오리를 일으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토론토와 뉴저지를 방문했다。 캐나다에서도、美國에서도 여유만만한 탁구기술과 은은한 미소를 가지고 中共은 대환영을 받았다。

美國탁구협회는 포스터에 「全美오픈선수권、세계챔피언의 친선방문」이라는 문구로 中共이 참가하는 대회를 선전했다。 또 세계선수권 재대결이라는 타이틀밑에 童玲과 安海淑、張德英과 黃男淑의 대전을 예고했다。

포스터속에는 中共의 李振恃·蔡振華·謝賽克과 童玲·張德英、그리고 한국의 金浣과 黃男淑·安海淑、美國의 대니·사일러、에릭·보간、스웨덴의 미카엘·아펠그렌등 스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대회주최측의 예고처럼 全美오픈은 中共과 한국의 유고선수권이후 재대결과 같은 분위기를 이루었다。 그리고 中共이 한국남녀복식조에 패배하던 날、中共의 몸에 밴듯하던 여유와 미소도、中共에 대한 美國人들의 허황된 찬사도 사라지고 말았다。

中共의 張釣漢단장은 『친선경기겸 여행하는 기분으로 美洲순방길에 올랐다』지만 챔피언복식조가 깨질때만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中共은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키위해 美洲에서의 스포츠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더 단단한 무장을 하고 美洲원정에 오를것이 확실하다。

한국역시 세계정상의 영광을 되찾기 앞서 더 많은 국제경기경험을 쌓고 적을 알기위해 全美 오픈대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方錫絢기자】

金壽玉·李貞順 緖戰장식

世界여자테니스 選拔

薛旻敬·高志賢눌러

제19회 페데레이션 컵 세계여자 테니스선수권대회 (11월9~15일·東京) 파견대표선수선발전이 6일 장충코트에서 열렸다。 첫날 金壽玉은 같은 農協소속의 薛旻敬을 6-2、4-6、6-0으로 물리쳤으며、慶尙大의 李貞順은 동료高志賢을 6-0、6-3으로완파、각각 서전을 장식했다。

이번 선발전에는 金壽玉、薛旻敬、金明淑(이상농협)、趙恩玉(국민은)、韓恩淑、申順浩(이상조흥은)、李貞順、高志賢(이상경상대) 등 8명이 출전、풀리그로 4명의 대표를 가리게 된다。

◇첫날전적

李貞順 2 (6-0 6-3) 0 高志賢
(경상대) (경상대)

金壽玉 2 (6-2 4-6 6-0) 1 薛旻敬
(농협) (농협)

大邱高·邱商첫승리

大鵬旗 야구예선

【大邱=聯】제34회 화랑기 및 제3회 대붕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大邱市 예선전이 5일 大邱시민운동장에서 慶北高 大邱高 大邱商 慶光高등 4개팀이 출전、리그전으로 개막됐다。

대회첫날 大邱高는 청룡기 패자인 慶北高를 3대1로、大邱商은 신예 慶光高를 9대0 7회 콜드게임으로 각각 물리쳤다。

◇첫날전적

慶光高 (1패) 000 000 0 ─ 0
大邱商 (1승) 004 122 × ─ 9
(7회콜드게임)

慶北高 (1패) 100 000 000 ─ 1
大邱高 (1승) 200 100 00× ─ 3

臺北서 開催하기로 토마스컵 배드민턴

自由中國 배드민턴협회는 제12회 토머스·컵국가대항 남자배드민턴대회 (82년5월·英國) 아시아동부지역예선 1회전 (韓國-自由中國)을 臺北에서 개최하겠다고 6일 배드민턴협회에 제의해왔다。

南加州 고교 選拔팀에

한국靑少年 野球대丑大勝

世界大會앞서

제1회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청소년 대표팀은 6일 (이하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가진 사우드·캘리포니아고교선발팀과의 친선경기 1차전에서 9-2로 대승했다고 협회에 알려왔다。 한국팀은 7일 LA선발팀과 친선2차전을 가진후 9일 세계대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떠난다。

한국은 네덜란드、스웨덴、캐나다、과테말라、베네수엘라등과함께 B조에 속해있으며 개막일인 11일 과테말라와 첫경기를 갖는다。

對陣일정確定

오는11일부터 18일까지 美國 오하이오州 뉴욕시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의 대진일정이 6일 확정되었다。

12개국이 출전하는 이번대회에서 한국은 예선B조로편성되었으며 11일 과테말라와 첫경기를 갖게된다。 6개국씩으로 편성된 A·B조 예선 풀리그서 각조 상위 1개팀이 결승에 진출、17·18일 이틀동안 3전2선승의 결승시리즈를 벌인다。

◇韓國팀경기일정 ▲11일=대과테말라 ▲12일=대캐나다 ▲13일=대베네수엘라 ▲14일=대네덜란드 ▲15일=대스웨덴 ▲17·18일=결승시리즈

◇(上)상대선수들·심판들과 거친싸움끝에 처음윔블던 테니스 남자단식우승트로피를 차지한 존·매켄로。 【윔블던UPI=聯】

◇(下)결승에서 美國의 존·매켄로에 3-1로 석패、윔블던 남자단식 6連覇의 꿈을 이루지못한 스웨덴의 비외른·보리가 켄트공작부인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있다。 【윔블던AP=聯】

윔손은 世界를 制覇했다

話題도 많았던 윔블던·테니스

스포츠話題

매켄로 單複式 2冠王차지

보리는 6連覇도전서 실패

美國의 존·매켄로가 대회 6連覇를 노리던 숙적 비외른·보리를 물리치고 처음으로 감격적인 남자단식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어느때보다 시끄러웠던 윔블던·테니스대회가 5일 막을 내렸다。 매켄로는 남자복식서도 피터·플레밍과함께 우승、2冠王이 되었다。 여자단식서는 美國의 크리스·에버트·로이드가 74·76년도에 이어 3번째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복식서는 나브라틸로바-슈라이버조가 우승했다。

존·매켄로와 비외른·보리의 윔블던결승대결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보리는 지난해 결승에서 매켄로를 3-2로 물리쳐 우승했으며、80년까지 매켄로에 통산 7승4패의 우위를 지키고 있었다。 보리는 금년대회 1백년만의 6連覇기록에 도전했으며 이대회단식서만 40연승의 쾌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5일의 81년도 윔블던 남자단식 결승전은 세계남자테니스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해주었다。 폭발적인 서브와 발리를 구사하는 왼손잡이 존·매켄로(22)는 베이스·라인 플레이어인 비외른·보리(25)를 4-6、7-6、7-6、6-4로 제압、세계남자테니스의 최강의 자리를 빼앗았다。

74년 윔블던과 濠洲、全美오픈을 석권했던 美國의 지미·코너스이후 80년까지 윔블던서 5連覇 프랑스·오픈 3連覇를 기록했던 스웨덴의 스타 비외른·보리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슈퍼·스타 존·매켄로의 시대가 다가오고있다。

존·매켄로의 위력은 강한 왼손서브에 있다。 매켄로는 이서브의 강점을 이용、베이스·라인에 붙은 보리에 맹공을가해 3-1의 완승을 거둘수있었다。 보리는 제3세트에서 3차례나 많은 세트·포인트의 찬스를 살리지못해 승기를 놓쳤다。

크리스·에버트는 결혼이후 더욱안정된 플레이로 프랑스·오픈 2連覇에 이어 윔블던서 3번째우승을 차지했다。

이번대회서는 존·매켄로와 비외른·보리의 남자결승、비외른·보리와 지미·코너스의 준결승등 라이벌들의 세기적대결에 못지않게 잇단 판정불복소동으로 화제가 끊이지 않았다。

첫 남자단식우승으로 4만3천달러의 상금을 받은 존·매켄로도 심판에 대한 불손행위로 윔블던 대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기위원회에 의해 총1만4천7백50달러의 벌금을 물게될 궁지에 몰려있다。

매켄로는 2일 濠洲의 로드·프롤리에 악전고투하며 선심에 13차례나 항의、『너따윈 인류의 치욕』이라고 욕설을퍼부어 경기위원회가 국제남자프로테니스위원회에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권고했다。

기분이 상할대로 상한 세계챔피언 존·매켄로는 4일 대회위원회가 우승자들을 위해 마련한 전통적인 만찬에 아무런 해명없이 불참했고、이때문에 또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사보이 호텔에 마련된 만찬회장에서 全英클럽의장 브라이언·버네트경이 매켄로의 불참에 유감을 표하자 여자우승자 크리스·에버트는 『美國人으로서 대신 사과한다』고 말했다。

대회중에는 코트 곳곳에서 판정항의소동이 일어났으며 일몰시간에 경기를 중단시켰다가 팬들로부터 빈병세례를 받는등 81년도 윔블던 테니스대회는 1백5년의대회사상가장 큰곤욕을 치르어야했다。 【윔블던(美國)=聯】

韓國、決勝리그 進出

존즈杯농구 比도 완파3連勝

【臺北5日AP=聯】제5회존즈배쟁탈국제여자농구대회에 참가한韓國팀은5일臺北의中華체육관에서 벌어진 필리핀과의 대전에서 1백19-42로 완파함으로써 3승무패를 기록、C조1위로 결승리그에진출했다。

이대회 전년도 우승팀인 韓國은 이날 필리핀팀을 맞아 전후반을 각각 67-14、52-28로 크게 눌러 이겨 7일부터 14일까지 벌어질 결승리그에서 美國、캐나다、네덜란드、西獨、뉴질랜드、대만의 백팀및 청팀등 7개팀과 우승을 겨루게 됐다。

한편 이날경기에서 美國은 캐나다를 89-35로、네덜란드는 西獨을 52-46으로、스웨덴은 英國을 72-52로、뉴질랜드는 泰國을 74-31로、그리고 대만백팀은 싱가포르를 91-34로 각각 눌러 이겼다。

이번 제5회 존즈컵대회는 세계14개국의 15개팀이 참가하고있다。

鄭巡鉉KO勝

日、다까다에2회

프로복싱 WBA 밴텀급8위인 鄭巡鉉(27)은 5일 文化체육관에서 벌어진 前OPBF 동급챔피언 日本의 다까다·지로와의 논타이틀10회전경기서 4차례의 다운을 뺏은끝에 2회 37초만에 KO승을 거뒀다。

프로레스一行 來韓

金煥珍과 防禦戰

오는19일 大邱에서 金煥珍(26)의 도전을 받아 타이틀매치를 벌이는 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 주니어플라이급챔피언 멕시코의 페드로·플로레스(31)가 6일 상오 매니저인 루페·산체스씨등 일행5명과 함께 내한、新羅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7일부터 極東체육관에서 컨디션조절에 들어가는 플로레스는 갈색의 다부진 몸매로 『8회에 KO로 1차방어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겠다』고 장담했다。

금년나이 31세인 플로레스는 金煥珍(26)보다 신장면에서 1m57로 2㎝가 더크며 나이는 5살이나 많은노장으로서 프로전적이 22전16승(3KO) 6패를 기록하고 있다。

◇金煥珍과 타이틀매치를 갖기위해 6일상오 내한한 WBA 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 멕시코의 페드로·플로레스。 【6日=聯】

中東·慶熙 昌信工·錦湖

高校축구 4強압축

제14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 축구대회는 中東高-慶熙高、馬山昌信工-錦湖高의 4강대결로 압축되었다。 5일 효창운동장서 우중에 속행된 대회 9일째 준준결승서 昌信工은 후반 11분 FW 朴良夏가 4게임 연속득점에다 첫골을 기록、1-0으로 리드를 잡은후 HB 金洪奎가 29、38분에 연속골을올려 3-0으로 大邱啓聖高에 낙승했다。 錦湖高와 全南體高의 대전서는 양팀에서 후반 5골을 터뜨리는 혼전끝에 3-2로 錦湖高가 신승했다。

全南體는 후반11분 HB 金興權의 헤딩으로 선제골을 올렸다。 錦湖는 19분 吳承錫이 동점골을 뽑고 23분 FW 李炳基의 센터링을 FW 宋甬銳이 머리로 밀어넣어 2-1로 전세를 뒤집었다。 全南體는 37분 FW 殷廷求가 다시 2-2 동점골을 만들었으나 경기종료 1초를 남기고 錦湖의 吳承錫에 결승골을 허용、3-2로 역전패했다。 中東高와 崇義實高는 득점없이 비겼으나 승부차기서 中東高가 3-1로 이겼으며 慶熙高와 馬山工의 대전서는 경기종료 4분전까지 1-0으로 뒤지고 있던 慶熙高가 HB 朴基奉의 헤딩 슛으로 타이를 만든후 승부차기서 4-2로 승리했다。 준결승전은 비로하루 순연되어 7일 열린다。

◇제9일전적
▲준준결승

창신공고 3 (3-0 0-0) 0 계성고

중동고 0 (0-0 0-0) 0 숭의실고 〈승부차기3-1〉

경희고 1 (1-0 0-1) 1 마산공고 〈승부차기4-2〉

금호고 3 (0-0 3-2) 2 전남체고

◇誠信올스타와 崇義올스타의 대전。 백넘버가 똑같은 誠信의 朴月李(右)가 리바운드 볼을 잡으려하자 崇義의 趙聖淑이 朴을 밀치고있다。

게베니거 世界新

女子혼영 2百m

【東베를린4日AP=聯】東獨의 여자수영선수 우테·게베니거(17)가 4일 東베를린에서 속개된 東獨수영선수권대회 여자개인혼영2백m 부문에서 2분11초73을 기록、세계신기록을 경신했다。

고교재학중인 게베니거는 지난2일에도 평영1백m경기에서 1분9초39를 마크、기록을 경신함으로써 2개의 세계신기록을 보유하게됐다。

養正·誠信우승

高校올스타농구 徽文·崇義꺾어

제1회 서울시 협회장기쟁탈남녀고교올스타전은 誠信올스타와 養正올스타가 우승을 한 가운데 5일 장충체육관서 폐막되었다。 최종일 誠信올스타는 朴月李、金連姬의 활약으로 재학생이 중심이된 崇義女高를 74-64로 꺾고 2연승으로 우승했다。

한편 남고부결승서 養正올스타는 金豐助、鄭秉勳 두가드의 파워로 吳世雄、張泰學이 분전한 徽文올스타를 91-72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최종일전적
▲여고부

성신올스타 74 (40-30 34-34) 64 숭의올스타

▲동순위=①성신 2승 ②숭의 1승1패 ③배성 2패

▲남고부결승

양정올스타 91 (48-40 43-32) 72 휘문올스타

江原大 2連覇

種別하키選手權

【釜山=聯】江原大、忠北堤川高、平澤女綜高、龍山中이 제24회 전국종별 하키선수권대회 각부 패권을차지했다。 (5일·釜山萊城中구장)

江原大는 이날 대학부결승에서 朝鮮大와 접전끝에 3-2로 눌러 2연패하고 올해 춘계연맹전우승에 이어 전국대회 2관왕이됐다。

最優秀선수에 조규남

최우수團體 全北體高

全國學生아마복싱폐막

제31회 전국학생 아마복싱대회 최종일 결승전이 仁川실내체육관서 열려 12체급 우승자를 가려내고 폐막되었다。 이날 라이트급결승서 조규남(全北體)은 이장승(儒城高)에 일방적인 판정승을 거두고 이대회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그리고 라이트헤비급의 김공근(全北體)은 박지석(全南體)에 1회1분55초만에 기권승을 거두었다。

全北體高는 라이트급、라이트헤비급을 석권、최우수단체로 뽑혔다。

◇최종일전적

▲고등부코크급 오광주(전남체) 판정 변상구(청주농)

▲동라이트플라이급 김재홍(동아고) 판정 최창섭(경상공)

▲동플라이급 전달원(부산체고) 판정 김남제(광성공)

▲동밴텀급 이방헌(한영고) 판정 박용운(금성고)

▲동페더급 성득호(부산체) 판정 정유철(동아고)

世界的 선수8명 10월에 招請경기

테니스協會、프로大會열어

대한테니스협회는 오는10월 세계적인 프로·테니스스타 로스코·태너(29·美國·세계랭킹13위) 존·새드리(24·美國·세계15위)등 8명의 선수를 초청、大邱경북체육관과 서울 잠실종합체육관에서 81년도 해태盃쟁탈 코리아초청국제프로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총상금8만5천달러(한화 5천9백50만원)가 걸린 이대회에는 3명의 프로스타가 단·복식에 출전、토너먼트로 우승을 다투게된다。 10월22일 大邱에서는 4단식의 1회전경기가 벌어지며 23일서울에서는 단식및복식준결승、24일에는 단·복식 결승전및 3·4위전이 벌어지게된다。

단식우승자는 게런티외에 1만달러、복식우승자는 5천달러의 상금을 받게된다。

◇참가선수=로스코·태너、존·새드리、빅터·아마야、빌·스캔론、빈센트·반패튼、지미·아리아스(이상미국) 킴·워릭、[illegible] (이상 호주)

번역·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Tor. M4A 2R1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 : 759-9505(5시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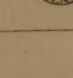
비둘기사진 식자인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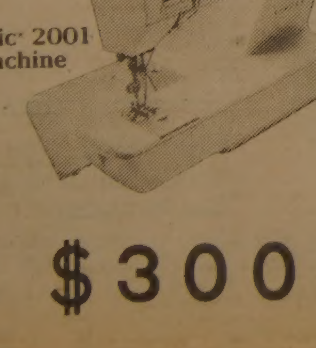
고급 인쇄를 원하시면 사진식자가 있는 비둘기 인쇄소를 찾으세요.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 : 493-8894 윤 종 대

〈CLEARANCE SALE〉
2 WEEKS ONLY
(1981년7월3일~7월18일까지)

SINGER

● Repair $24.99
● Used Machine(중고품) $49.95부터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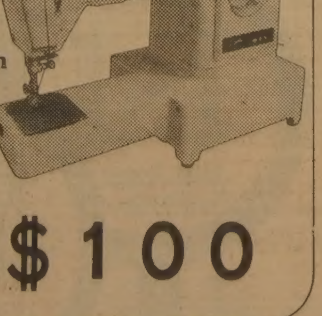


The Touch-Tronic* 2001 memory machine

SAVE $300

The Fashion Mate* ZIG-ZAG machine

SAVE $40



The Stylist* FREE ARM Stretch Stitch machine

SAVE $100

미싱계의 왕 싱거!

바느질 배우는 낮과 저녁반 코스를 제공
우리는 모든 종류의 미싱을 취급합니다.
TRADE-IN도 합니다.
CALL : MR. ARMAND
620 BLOOR ST. W. TOR.
(킴스카메라 건너편)
☎ : 537-4881 or 537-3841

우리時代의 傳說 베스트셀러 이야기 ㉑

李光洙 著 島山 安昌浩

民衆속에 심은 救國志士의 얼

親日반역자로 몰린 春園 숨어 執筆
47년 初版…6·25후에야 著者名 밝혀
생애와 思想소개…지금까지 15萬部 팔려

解放까지도 이름 잘안알려져

8·15해방당시 우리 민중들은 「島山 安昌浩」라는 이름을 잘 몰랐다. 일반대중은 말할것없고 대학생이나 전문학생들도 대부분 島山이라는 이름을 알았거나 그저희미하게 이름을 기억하는 정도였다. 그것은 島山의 성격과 인생관때문이었다고 보는것이 옳다. 천성적으로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그는 모든 큰일을 배후에서 떠맡고 공은 언제나 다른사람에게 돌렸던것이다.

그의 발자취도 대중들에게 부각되는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독립을 얻기위해서는당장에 싸우기보다 우선 힘을 기르자」는 그의 興士團창립 이념은 열혈지사들이 속속피를 흘리던 당시의 상황에서 너무도 지리하고 답답한 느낌이었다.

그런 島山이 民族史의 위인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그의 구국이념을 실현하기위한 단체인 興士團이 날로 성장하게된데는 「島山 安昌浩」(李光洙著)라는 베스트셀러의 힘이 결정적이었다.

1947년5월30일 太極書館에서 4×6版 3백98페이지에 입시정가 3백원으로 나온 이책은 앞부분에서 島山의 생애를, 뒷부분에서 구국이념을 쓰고있는 본격적인 傳記다.

1878년 大同江의 도롱섬에서 安興國의 3남으로 태어난 安昌浩는 20세에 독립협회에 가입함과 동시에 平壤 快哉亭의 萬民共同會모임에서 사자후를 토해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후에도 美洲와 中國등지에서 독립운동을펴던 그는 1932년 尹奉吉의사의 虹口공원 폭탄사건으로 日警에 붙들려 大田형무소에서 4년간 복역했다. 1935년 출옥한 島山은 2년뒤에 다시 同友會사건으로 붙들려 체포됐다가 이듬해 광복을 7년남기고 눈을 감아야했다.

따라서 島山의전기는 그가 간지 9년만에 나온셈이며, 특히 春園이라는 천재가 썼다는데 큰 의미가있다.

島山紀念事業會刊行 島山安昌浩

◇「島山 安昌浩」初版. 표지의 휘호는 33인인 吳世昌선생이 썼고 안에는 白凡과 李承晩의 휘호가 들어있다.

◇구국의 길은 務實力行임을 주장하고 실천해온 安昌浩선생.

(梁平기자)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세계의 詩心이 모인 詩의 本鄕
美 샌프란시스코서 제5차 詩人大會

詩의 本鄕으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5차 세계시인대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세인트프란시스호텔에서 베풀어지는 이 대회는 「詩와 敎育」(5일), 「詩와醫藥」(6일), 「詩와 宗敎的眞實」(7일), 「詩와科學」(8일), 「詩와 美國, 그리고 샌프란시스코」(9일)등 다채로운 主題로 펼쳐지고 있다. 이 회의에는 30개국에서 2백여명이 모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趙炳華, 成春福, 劉庚煥, 金后蘭, 朴暘均, 金恵淑, 姜桂淳, 申東春, 朴貞娥, 林星淑, 崔元圭, 李秉錫, 崔鮮玲, 安恵初, 黃性伊씨등 15명의 詩人들이 참가하고 있다.

20세기 主導하는 각국詩의 求心地
30國서 2백명…한국代表15명 참가
全圭泰교수 「詩와 佛敎의 接木」강연

◇全圭泰교수

◆「詩人의 도시」「詩人의 本鄕」으로 불리고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옛도시의 風景. 제5차 세계시인대회가열리는 이도시에는 지금도 여전히電車가 다니고 있다.

내년5월 「서울國際博覽會」
貿公주관, 세계74개국 초청계획

平和봉사단協定끝나
9月말…"美豫算삭감·우리國力향상"

美弗貨강세로 油價下落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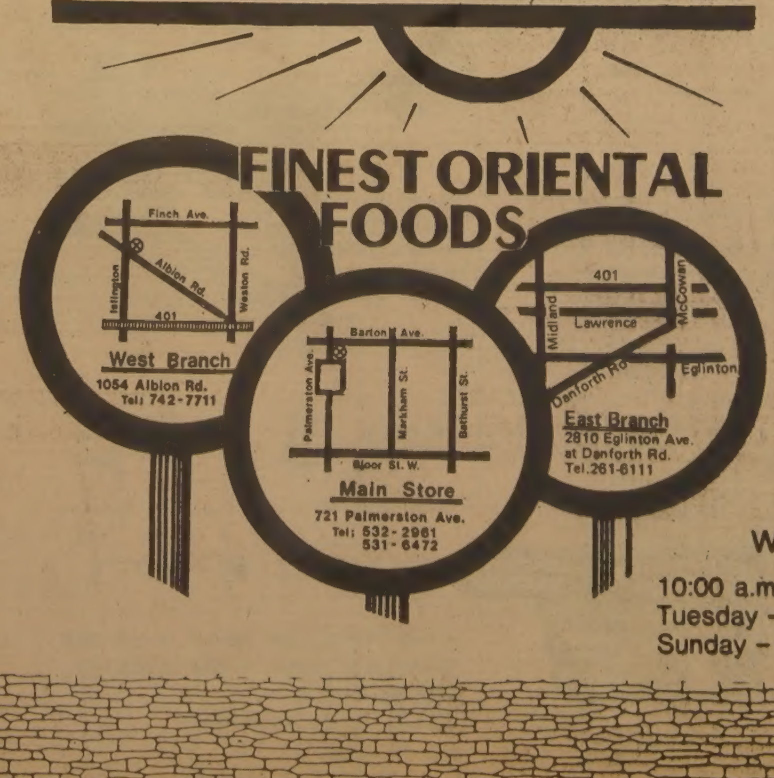
우주전쟁 장면등 기상천외의 手法
新作 007映畵

濟州「빌레못」調査 착수
굴길이동…곧 天然紀念物지정 決定

동부확장이전 스페샬
서부지점, NEW MANAGEMENT스페샬

Unico튀김오일 3 litre — $ 3.50
Coca Cola 24 can —— 4.99(2Box Limted)
콜·게이트 치약 100 ml —— 1.09
통닭 lb —— 99¢
닭다리 lb —— 99¢
소, 양 (Tripe) lb —— 39¢
복숭아(U. S. №1) lb. —— 49¢ Box 9.50
U.S. 엑스트라·휀시 (사과) lb. —— 49¢ Box $19.00
수박 —— 2.95
사뽀로이찌방(24개) Box —— 9.95
조기(대) 33 lb —— 54.95

※이품목은 매진 될때까지임



West
10:00 a.m. - 10:00 p.m.
Tuesday - Closed
Sunday - Open

Main
10:00 a.m. - 10:00 p.m.
Tuesday - Closed
Sunday - Open

East
Mon. - Wed: 9:00 a.m. - 10:00 p.m.
Thur. - Sat: 9:00 a.m. - 12 midnight
Sunday: Closed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내 구역에서 댁이 아주 마음에 드는 가정이라고 아내한테 얘기했죠"
"아내가 아주머니 위해 군 파일케이크를 가져 왔읍니다"
"자 때에은 우편물은 여기있구요. 모두 청구서죠"
"아저씨보다는 부인이 훨씬 멋있는 분이군요!"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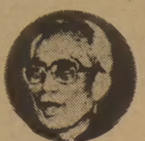
中共, 탕大主敎임명 猛非難

교황청의 和解노력 물거품

교황요한바오로2세가 바티칸과 中共교회간의 관계개선을 노려 도미니크·탕(鄧以明)주교를 廣東교구 대주교로 임명한 조치는 당초의 뜻과는 달리 中共교회와 정부 양측으로부터 호된비난을 받고있다.

교황은 26년만에 처음으로 탕주교를 대주교로 승진시킴으로써 교황청과 中共간의 해묵은 불편한 관계를 개선해 보려했으나 中共정부의 후원을 받는 애국교회협회(PCA)를 전혀 언급하지않은것이 中共교회의 비위를 건드려 독자노선을 재선언하는가하면 정부는 정부대로 교황청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선것.

中共교회는 공산당이 실권을 장악한지 8년만인 1957년 이래 교황청과는 별도의 독자노선을 걸어왔는데 바티칸당국은 한때 3백만을 헤아리던 「잃어버린 中共목자들」을 교황의 품으로 다시 포용하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鄧以明

실제로 교황청 국무상인 아고스티노·카사롤리 추기경은 지난2월 교황이 필리핀을 방문했을때 교황은 中共의 독자적 교회를 강복(승인)할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으며 후일 홍콩에서 탕주교와 만난후 구체적인 강복여부는 中共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中共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않았으며 이 줄다리기속에서 탕대주교가 임명되자 양측의 해묵은 불화는 더 심화돼 中共당국이 1976년 毛澤東사후 공식적인 종교탄압을 철폐한이래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금년73세의 노약자인 탕주교는 中共에 공산혁명이 발발한직후 교황청의 주교임명을 수락하는등 반혁명활동을 한 혐의로 1958년에 투옥된이래 수시로 투옥, 또는 집단농장에 수용돼 23년동안이나 시달려왔다.

정부는 교황의 탕대주교임명이 부당한 내정간섭이며 주교는 대주교임명을 수락함으로써 中共교회를 배신했다고 비난했으며 교회측은 지난달22일 당초의 廣東교구주교직을 박탈했다.

廣東교구는 탕주교를 「교황의 주구」라고 비난하고 그는 더이상 고위직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직위해제이유를 밝혔으며 다른교구에서도 돌아가며 그를 비난하고 있다.

【北京=聯合】

女子를 보는눈

朴順天 〈前 民衆黨黨首〉

千字春秋

이세상 인구의 절반은 男子이고 절반은 女子이건만 男子와 女子사이에는 항상 맹목적인 편견이 도사리고 있는듯하다. 女子도 男子도 모두 人間이며 人間이기에 잘못을 저지를수도 있는것인데 그것을 「女子이기때문에 저지르는 잘못」, 「男子이기때문에 저지르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일을 흔히 보게된다.

우리의 歷史를 보면 朝鮮朝 5백년동안 철저하게 여자를 차별하였고 여자를 남자의 종속물로 취급하였다. 三從之道라든가 七去之惡이라든가 하는 그당시의 倫理規範을 보면 얼마나 女子를 人間이하로 취급했는지 잘알수있다.

해방이되어 民主政府가 수립된지 36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女性차별의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우월감을갖고,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게된다.

『女子가 무슨 政治를 한다고 나대느냐』는말이 아직도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우리풍토에서 30년전에 政治를 한다고 나섰던 나는 숱한 야유와 차별을 받았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선거운동 유세장에서 으레 듣는말이었고, 國會에서 투쟁중 격해서 눈물을 보였더니 『平壤妓生인가, 울긴 왜울어』란 비양거림을 받기도 했다. 稚石 趙炳玉박사처럼 美國서 교육을받고 民主意識이 투철했던분도 지방유세를 다니다가 아기를업은 남자를 보면 『저기 女子國會議員남편이있군. 여자국회의원 남편은 아기보는일도 한다네』라고 나를 빗대어 놀리곤 했었다.

이런일들은 오히려 「애교」로 봐줄 일들이었다. 「男性同志」들은 女性票가 필요할때면 나를 최고위원으로 내세웠고, 파벌싸움이 심해지자 「야심이 없는 女子」를 黨首로 선출했으며, 드디어 野黨통합으로 大統領후보를 單一化하게되자 「女子黨首」를 제쳐놓고 「할아버지 제사지낸후 떡갈라먹듯」 자기들끼리 要職을 나눠가졌던 것이다.

엄연히 女子國會議員이 있는데도 國會의사당안에 女子用화장실을 만들지 않았던 현실이니 더 말하면 무엇하겠는가.

여의도의 새국회의사당에는 물론 여자용 화장실이 있다고 들었고, 요즘엔 女性의 地位가 크게 향상된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다. 그러나 男子와 女子가 서로를 人間으로 보지않고 편견을 갖는한 女性地位向上은 아직도 멀다는 생각을 해본다.

文豪의 名言

사람의 마음속엔 相反된 두개의 감정이 있다

芥川龍之介 <1892~1927>

<自畵像>

日本大正文學의 旗手, 東京출신, 東大英文科 재학중 「羅生門」(라쇼오몽) 발표. 이때부터 漱石門下에 들어 「鼻」(하나)로 漱石의 賞讚을 받아 新進作家의 지위를 굳힘. 36세로 自殺.

사람 마음속엔 서로 상반된 두개의 감정이 도사렸다. 물론, 누구나 남의 不幸에 同情 않는자는 없다. 그러나 그사람이 그 불행을 어떻게든 해결해내면, 이번엔 이쪽에서 뭔가 마음한구석에 흡족치못한 감정을 갖게된다.

약간 과장해 말한다면, 재차 그를 똑같은 不幸으로 몰아넣고 싶은 기분마저 인다.

그리하여 어느새 소극적이긴하나 어떤敵意같은걸 그에게 품게끔 되는것이다.

× × × ×

단편 「鼻」(하나)로부터의 인용이다.

소위 『傍觀者의 利己主義』를 잘 나타낸말로 흥미있다.

「아꾸따가와의 本質은 어쩌면小說家로서보다는 隨筆家였는지모른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이 「鼻」의 일절을 비롯, 그의 소설가운데는 그 귀절만으로 독립된수필이나 隨想으로 통용될만한 것이많고, 그가운데는 소위 名言이나 警句가 상당수 엿보인다.

「가장 슬기로운 生活은 한時代의 습관을 경멸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 습관을 조금도 깨뜨리지 않게끔 사는것이다」(侏儒의 말)도 그 한예다.

[illegible] 「西方의 사람」「侏儒의 말」같은것은 文藝한층 [illegible] 미해결한것이며 기발한관찰과 [illegible] 어떤 의미에선 소설이상으로 그의 才氣가 나타났다 할수있다. 「남자는 원래 [illegible]보다는 일을 존중하는 터다. 만일 이를 의심하는자가 있다면 발자크의 편지를 읽어보라」

그가 한스伯爵夫人에게 「이편지도 원고료로 환산하면 몇프랑이 될텐 넘을것이다」

「人生은 한줄의 보들레르만도 못하다」(어떤바보의一生)

「遺傳 境遇 偶然, 우리의 運命을 지배하는것은 필경 이三者이다」(侏儒의말) 참고로 芥川賞(아꾸따가와賞)은 昭和10년 그의 생전의문학적 업적을 기리기위한 일본의 新人登龍門의 文學賞.

그의遺兒 比呂志(히로시) 也寸志(야스시)는 현대일본의 저명한 演出家요 作曲家이다.

그의 죽음은 大正文學의 終焉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時代의危機와不安을 告하는것으로 지식인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自殺에 관해선 「막연한 不安」등 말이많은데 베개맡엔 聖書가 놓여있었다 한다.

文化短信

「한국탈춤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7일부터 말일까지 동박물관 중앙전시실에서 「한국탈춤특별전」을 갖는다.

이번 특별전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2개지역의 탈을비롯, 중앙박물관 소장의 1930년대 수집품인 [illegible]洛·晉州·統營탈과 서울대학교 소장 山臺탈등 2백40점이 전시된다.

특히 국보로지정된 河回및 屛山탈과 중요민속자료인 方相氏탈등은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方相氏탈 (昌德宮所藏)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조 지 섭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SEWLL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20.00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20.00
☎: 532-3637 미스타 제

밀크 스토아 케쉬어구함 : 풀타임과 파타임
(유경험자 원함) DOWNTOWN지역
☎: 925-0339,

정원사 헬퍼 풀, 파타임 구함
55세 이상, 영어필요없음
☎: 653-8173(오후7시이후) 미스타 강

거주 하서서(5일/W.)석달된 여자애기와 4살된 여자애 돌봐 주실분
☎: 444-5778 미세스 Chalambalacis

입주하셔서 두 애기 봐주실분 구함
$400~$450
☎: 783-0683(낮), 665-4053(밤) 미세스 하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362-2800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533-0910 피터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742-0800 미스타 차

재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좋은 대우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매매및 양도

엑설런트 콘디숀 세탁기 2년 드라이어 6개월사용) 497-9180

베커 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
325 ST. GEORGE ST.
☎: 924-7696 미스타 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635-1038

SMOKE & GIFT SHOP매매 : 주매상 $6500보장, 리스8년+5년 옵션 게임수입으로 가게운영비용 일체 지불할 수 있음.
☎: 1-335-8946 ASKING $75000+스탁

밀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
ASKING 17000+스탁
511 MARLEE AVE. NORTH YORK

자동차 매매 : 76년도 핀토·스테이숀 왜건
POWER핸들, POWER브레이크(49,000마일)
☎: 742-0434 좋은 콘디숀임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이주관계상
매매코자 함, 2 베드룸 달려 있음
☎: 259-8139

아이스크림 기계 팝니다 :
☎: 535-7772, 439-8885 (오후6시 이후)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781-7080

12년동안 계속 성업중인 비지네스 매매
MEAT및 이와 관계있는 품목 취급, 호텔, 레스트랑, BAR등, 고정손님 있음, 쿨러, 냉동기, 2 냉장고.
그로스 년 $600,000
☎: 469-1710 Call. VINCE CAIRO
PETER L. MASON LTD.

가게 렌트
•영·스트릿(새 교외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지역임
(가게이름 : VALDI DISCOUNT FOOD STORE)
•자본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높은 이윤및 매상이 가능
•전화연락 : MRS. POPP(223-1606)

번잡한 노스·욕 몰안에 있는 스토아 매매
신선한 쥬스,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Fast Food취급
자동기구 완전 구비되었음, 남편의 직장전근상 매매코자 함, 그로스 Profit : 주매상 $1600의 73%
Asking : $60,000 ☎: 249-3914
(CALL ONLY 7 : 30PM to 10 : 00PM) ZARINA

성업중인 BAKERY 매매
TOTAL PRICE $130,000 7만달러 다운페이 CASH원함
1608 CLARKSON RD. MISSI.(오후 내방)
7시 까지 미스타 김

가게매매 :
작은 가게를 원하시는 분 연락바람
☎: 656-7753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구독신청(월~토)
533-2361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836, 757-2106 홍 진 표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췌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꽃집

꽃 집 크로스웨이 (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꽃꽂이, 생일,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1)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2)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 이삿짐 나라운수 피아노, 쿨러 ☎: 630-6602

미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커트, 파마 전문, 9시~오후8시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651-9824(B), 226-5430(R) 변 달 원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인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746-0675 박 종 남

악기점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액숀조정, 건반, 캐비넷칠, 중고매매조율김 수 웅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0200

에어콘·히팅·냉장고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466-4304, 469-3341 박 기 용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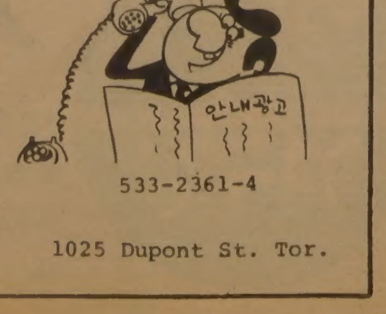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기타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961-1057

아파트 세 놓음 : KING & LANSDOWNE
2층 1베드룸, 지하실 2베드룸
☎: 536-4250(오후6시이후) 이 대 환 부 동 산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캐나디안 랩소디 ⑩
– Canadian Rhapsody –

글·그림 신동헌

◇뱅쿠버 부쳐트화원의 이태리식 정원

벤쿠버항 앞에방패처럼가로놓여 태평양의 거센파도를 막아주는 섬이 벤쿠버섬(Vancouver Island)이다. 섬이라고 하지만 우리 남한면적의 절반가까이 되는 면적이니 제주도가 프라이급이라면 벤쿠버섬은 슈퍼·헤비급쯤 될 것이고, 북·남미주를 통틀어 태평양쪽에선 가장큰 섬이다. 캐나다와 미국과의 국경선을 어떻게 긋느냐로 옥신각신이 있은끝에 1846년의 오레곤 국경협정에서 미국워싱턴주와 캐나다의 국경을 북위 49도선으로 하고, 동남단이 49도 이남까지 내려와 있는 벤쿠버섬은 생선 자르듯이 나눠서 차지하는 것도 째째하니 "몽땅네가갖다 먹어라!"식으로 미국이 양보하여 섬전체가 캐나다의 차지가 된것이다. 둘다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이니 하는짓이 시원해서 좋다.

벤쿠버섬의 맨처음 주민은 어떤 부족이었느냐? 그것도 캐나다의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확설은 없으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약6천년전에 건너온 몽고, 중국, 포리네시안, 일본 혹은 한국인의 혈통이었으리라고하니 여기서도 우리들의 아득한 조상들이 얼굴을 내민다. 6천년전 이면 단군보다도 1천7백년정도 앞이니 단군할아버지 에겐 대단히 죄송하나 우리민족의 시조의 뿌리를 훨씬 거슬러 올라가 벤쿠버섬에서도 찾아볼만도 하다.

벤쿠버섬은 여러가지 심한 대조를 이루고있는 재미있는 섬이다.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흩어져있는 거치른 목재집적장이 있는가하면, 빅토리아의 정성스렵게 보존되어있는 유서깊은 건물들이 있고, 원시그대로의 황량한 경치가 서해안에 펼쳐져 있는가 하면, 아름답고 정연하게 다듬어진 "부쳐트화원"이 있고, 북부의 기후는 폭풍이 휘몰아치기가 일수인가 하면, 남부는 따뜻한 햇살이 쪼이는 온화한기온, 딱딱함과 부드러움, 강약, 경유가 공존하는 선천적 양성아와도 같은 기묘한 특색을 가진 섬이다.

이런 지리학적 특징속에 사는 섬주민들도 본토인들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갖게 되어, 서두르지않는 생활템포, 상부상조의 협동정신, 도시와 농촌도 잘 융합되어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면 섬밖의 다른곳에서 전입되어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겐 좀 배타적이라고 하니 역시섬나라 근성이랄까, 사람. 순하게 보인다고 이민하려온 한국인이 명함 내놓을만한 곳은 못되는것 같다.

2차대전중엔 에스테반(Estevan)갑(곶이)에있는 등대가 일본잠수함에서 쏜 수발의 포탄을 얻어맞은일이있어 2차대전중에 적의 공격을 받은 캐나다 유일의 영토가 되었으니 명예스럽다고 할까, 불명예스럽다고할까, 그런 기록도갖고 있다.

벤쿠버항 으로부터 빅토리아·페리를타고 그섬을관광하게 되었던것은 기억에 남을만하다.

특히 "부쳐트·화원"은정말 볼만했다. 세계에 자랑한다는 그 화원은 1904 년에 제니·부쳐트가 쓸모없는 돌산을 다듬어서 만든 것이라니 대단한 일이다. 디즈니의 만화영화를 볼때 황홀한 배경에 도취되는일이 있는데, 그런 도원경과도 같은 정경을 현실로 지상에 꾸며놓았다고 생각해도 지나친 생각은 아닐것이다. 세계도처에서 씨를 얻어온 오만가지 기화요초가 현란하게 미를 다투며 아한대로부터 아열대에 이르기 까지의 거진 모든종류의 나무들이 그것도 유리로 덮고 인공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식물원도아니요, 노천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조화로 그게 가능한가 몹시 궁금하여 일하고있는 정원사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은 간단하였다. "기후가 온순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어쩌구 저쩌구…"하는 연설조의 자기네들의 수고자랑은 한마디도 없었으니 섬사람들의 순박한 일면을 보는것 같아서 기뻤다.

34에이커의 토지에 정통적인 이태리정원, 영국식장미화원, 일본 하꼬·니와식정원, 그리고 시원한 연못이있는 중앙 선큰·가든(Sunken Garden)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본정원이 있는데 한국정원이 없을소냐고 벤쿠버의 어느 돈많은 교포가 5년 안으로"코리안·가든"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니 두고볼일이다. (계속)

◇뱅쿠버섬의 거친 서해안

영화의 밤 자녀들 초청

몬트리얼 총영사관(총영사 김창훈)은 오는 19일하오3시 퀘벡대학. 강당에서 교포자녀들에게 조국의 아름다움과 발전상을 알리는 영화의 밤을 갖는다. 상영될 영화는「한국, 고요한아침의 나라」,「태권도」,「5,000년」및 극영화「가을비 우산속에」이다. 이날 총영사관은 음료수를 마련하고 어린이 들에게 태극뱃지를 나누어 준다.

교민동정

◆김창환(의사)=한국가톨릭 광주교구 병원원장인김씨는 장녀 기숙양의 결혼식을맞아 토론토로 돌아왔다. 가숙양은 이축길씨(전 사진협회장)장남 기철군과 4일 한인천주교회에서 결혼했다. 결혼식에는 오타와거주 김기홍씨, 칼톤대학교수 박수빈 박사(경제)등이 참석했다. 닥터김의가족은 오랫동안 토론토에살았고 이번 사돈된 이씨와는 친구지간.

◆주홍길=6·25유격실기「제3의 생명」을 저술했던 주씨는 4일 토론토에서 장녀 주영미양을 결혼시키고 바로 다음날인 5일거주지인 로스엔젤레스로 총총히 돌아갔다. 신랑은 전덕실씨 4남 아민식군. 토론토에서 수년간 살았던주씨는 작년에 미국으로 이주, 리쿼 스토어를 경영하고 있다.

◆장순채(식당 아리랑 경영)=5월26일 귀국, 6월16일 토론토로 돌아왔다. 이번 모국방문 목적은 장녀 헬렌양의 결혼식을 치르기 위한 것. 사위 권장하군(충북은행국제부장)은 8월4일 토론토 도착 예정으로 있다. 권군은 앞으로 3년간 토론토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할 것이라고….

장씨는 사위의 도착후 8월8일하오1~6시 토론토시블루어·앤드 오리엔탈팔레스에서 이들의 결혼피로연을 벌인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크리스틴공주 6주만에 파경

벨지움 왕실의 격렬한반대속에 이루어진 토론토피아니스트「폴·드레이크」(43)와 벨지움공주 매리·크리스틴의 결혼생활이 6주만에 끝났다.

드레이크씨는"전적으로 우리들의 개인적 이유로이혼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벨지움 왕실이강력히 반대하자 지난5월26일 후로리다에서 전격적으로 결혼했다.

크리스틴공주는 전 벨지움왕 레오파드 3세의 딸이며, 현 벨지움왕 바우딘과 남매간이다.

벨지움당국의 요청으로 이 커플을 찾고있던 토론토 경찰은 지난 5월6일 이들을 본부로 데려가 토론토주재 벨지움 영사와 면담시켰다. 이 자리에서 영사는 왕실의 결혼반대 의사를 전하고, 이에 응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드레이크씨는 부인과 사별, 3자녀를 두고있고, 공주는 현재「TV온타리오」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폴·드레이크 ◇크리스틴 공주

교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Burnhamthorpe, Hwy 10)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Bloor St, Yonge)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King St, Bay, Yonge)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중화요리·화식·캐네디안식
거구장

거 구 장

※환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대소연화

영업시간 : 아침11시부터 밤2시까지 연중무휴

가수와밴드 : 목, 금 토, 일(8시30분부터 밤2시)

가 수 : 신 현 희

→ 특 별 메 뉴 ←

개스불로 굽는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중화요리·케네디안식
요리전문
2백대 수용무료파킹장

5 BETHRIDGE RD. ETOBICOKE
KIPLING×HWY 401서·1 블럭 북쪽 첫신호등서 좌회전
☎ : 742-1618 곽정렬·김선남